난 신파물은 딱 질색이다. 착한 주인공이 역경을 딛으며 울고 짜고, 힘들게 버티면서 갖은 상처는 다 받더라.

'데이', 너를 위해 조금만이라도 나빠질 수는 없었을까?

너는 토 나오게 올바른 길만 고집해서 결국 오해를 풀고 사람들의 반성을 받아냈다.

이를테면 남자주인공이나,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내 행복은 나만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회의 그림자 앞에서>의 데이블린 래지스티나로 빙의했을 때 결심했다.

가시밭길을 걸어갈 이 애를 위해, 그리고 이 애의 삶을 답습해야 하는 나를 위해.

나는 악역이 되기로 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악역이 되기로.

데이블린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스로 머리를 빗고 세수했다.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잠옷 치마의 끝단으로 대충 닦고 무표정하게 방문을 노려봤다.

다락방 생활을 청산한 지 불과 일주일. 그리고 소설에 빙의해 학대받던 나, 즉 원작 여주 '데이'를 구해낸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갑자기 돌변한 막내 아가씨의 반란에 어리벙벙한 고용인들에게 가장 먼저 후작 영애의 신분에 걸맞은 멀쩡한 방을 요구했다. 그리고 후작 영애로 마땅히 누려야 할 대접을 명령했는데, 그저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깨우러 오라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세숫물과 실내복을 가지고 와 깨우라는 명령이 어려웠나.'

데이블린은 어젯밤 떠다놓은 미지근한 물과 수건이 없어 대신 닦은 낡은 치맛단을 내려다보며 픽 웃었다.

멍청하고 눈치 없는 고용인들을 손봐줄 것을 생각하니 피곤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모두 우리를 위한 일이기에 기꺼이 감내해야 했다. '데이'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희들이 자존심을 세운다 이거지."

데이블린의 입술이 비틀려 올라가더니 곧장 방문을 열고 나갔다. 빠른 걸음으로 이 층 계단을 내려가니 일찍이 아침을 맞이한 고용인들이 하루를 날 준비로 분주했다.

그들은 마치 데이블린이 이 자리에 없는 것처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일제히 그녀를 무시했다. 이전에는 천덕꾸러기 막내 아가씨에게 베풀 친절이 없어서였을 테고,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친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무심한 눈길로 그들을 보던 데이블린은 마침내 자신을 깨우러 오지 않은 하녀를 찾아냈다. 후작가의 귀한 맏딸, 마넷을 위한 아침상 준비를 돕고 있었는지 수프가 담긴 커다란 도자기 볼을 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눈이 마주쳐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다. 그러나 이내 굳은 결심이라도 했는지 입술을 깨물면서 눈을 똑바로 마주쳐왔다.

'재밌네.'

입꼬리를 끌어올린 데이블린이 다짜고짜 하녀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다.

"까아악!"

쨍그랑!

하녀의 몸이 쓰러지며 수프를 담은 도자기가 깨졌다. 지금까지 데이블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던 사용인들도 이쪽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얻어맞은 하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학대받은 제 꼴을 보라는 듯, 뺨을 부여잡고 쓰러진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일으켜주기 전까지 그러고 있을 건가? 그저 황당하고 웃겼다.

"참 나, 같잖아서 진짜..."

데이블린의 뒤에 덩치 좋은 하인들이 다가왔다. 지난 일주일간 난리를 피워줬는데도 눈치 없이 그녀를 말리러 온 거다. 참으로 가지가지들 했다.

"어디서 감히 주인 아가씨를 호명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 영지에서 그만 살고 싶은 건가?"

"...곧 영주님이 돌아오실 겁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고용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저택에서 제법 오래 알 박은 늙은 하녀가 나섰다. 주인 아가씨의 역정을 달래기는커녕 훈계하는 말투였다.

"계속 난동을 부리시면 저희도 아가씨를 감싸드리기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날 감쌌다고?"

"영주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인 일탈을 참아드렸으니 충분히 배려한거죠. 사춘기 반항도 이만하면 속 시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어이없네."

데이블린은 하녀의 말을 끊고 비아냥거렸다.

"너희가 뭔데 날 봐준다고 지껄여? 이 집의 주인은 난데 말이야."

데이블린 레지스티나는 고귀한 후작가의 영애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오랜 학대와 방임을 당한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업신여기고 지내는 곳은 먼지 냄새나는 다락방, 식사는 곰팡이 피기 직전의 빵 한 덩이.

원작 속 '데이'의 불행과 구원을 위해 준비된 싸구려 연극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나는 결코 '데이'처럼 굴복하지 않으리라. 데이블린은 강해 보이기 위해 입술을 사리물었다.

"아무래도 너희가 주인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왕녀 아그네스가 말하길, 귀족은 아무리 치욕스러운 상황에도 유머를 잃지 말아야 한다더라. 그래서 데이블린은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였다.

"멍청한 너희에게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줄게."

그리고 도로 계단을 올라가 가장 아늑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마넷의 방에 들이닥쳤다.

몸이 약하고 신경 줄이 섬세한 후작가의 맏딸 마넷 레지스티나는, 며칠 전 데이블린이 욕을 좀 했다고 충격받아 벌써 나흘째 방 밖을 두문불출하는 중이었다.

"으응...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마음을 다쳐 밥도 못 처먹는다더니 이 시간까지 팔자 좋게 잠이나 자고 있다. 구불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이 사랑스러운 소녀가 고운 아미를 찌푸리고 짜증 섞인 어리광을 부렸다.

데이블린은 코웃음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밖으로 끌어냈다.

"아, 아악! 또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데이블린, 미쳤어?"

"시끄러우니 멱따는 소리 내지 마. 목청에 정원 흙을 몽땅 부어버리기 전에 얌전히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마넷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울며불며 잰걸음 쳐 따라왔다. 멍청하고 말이 안 통하길래 며칠 내버려 두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용인들의 주제 파악을 시키는데 마넷만 한 게 없었다.

데이블린은 일 층으로 끌고 온 마넷을 끈적한 수프가 엎질러져 있는 바닥에 내팽개쳤다. 바닥에 얼굴을 잘못 부딪쳤는지 마넷이 볼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훌쩍. 아빠. 흐앙..."

"아가씨 제발 적당히 하세요!"

늙은 하녀가 화를 내든 말든 데이블린은 일절 대꾸하지 않고 하녀가 걸레를 담그고 있던 양철 양동이를 가져와 마넷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촤아악.

구정물을 뒤집어쓴 마넷은 목 놓아 울었다. 사용인들은 너무 놀라 말리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더러워 죽겠네. 냄새 나잖아. 청소를 대충했나?"

"아가씨. 어떻게 이런!"

"말해 봐, 마넷.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것들이 이런 푸대접을 해?"

"내, 내가 뭘..."

"덜떨어져서 기억 못 해? 하인들 가래침 떠다니는 걸레 빤 물을 목욕물이라고 넣어주질 않나, 다락에 가둬놓고 삼 일이나 빵 부스러기 하나 넣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 내가 주인 아가씨로 보이겠어? 응?"

"그건..."

고용인들이 데이블린이 쏟아낸 말에 숨을 죽였다. 하도 일상적인 장면이라 다들 무뎌진 학대였다.

바보 같은 '데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십 년 넘게 이어진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 데이블린은 그것을 두고 볼 생각이 없다.

마넷의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더니 훌쩍이던 그 애가 황급히 항변했다.

"나보고 어쩌라고? 아버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셔. 겨우 쫓겨나지 않고 사는 주제에... 쓸모도 없는 게 호의호식 하는 게 더 이상하지. 그보다 나 무릎 까졌어. 어쩔 거야, 이거!"

데이블린은 울먹이며 개소리하는 마넷의 부은 뺨을 꼬집었다. 아직도 천지 분간 못하고 엄살이나 부리는 이걸 언니라고 모시고 살았을 '데이'의 지난 세월이 떠올라 혈압이 올랐다.

"마넷,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얹혀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너희 엄마잖아. 응?"

데이블린의 손이 마넷의 이마를 툭, 툭 밀었다. 오뚝이처럼 휘청이는 마넷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질렸다.

"내가 아무리 아버님 총애를 잃었다지만 후작의 친딸인 건 바뀌지 않아. 그런데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남자의 씨냐고?"

그 말에 불쌍한 척 눈물을 질질 흘리던 마넷이 표정을 굳혔다. 정통성 얘기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마넷은 대답할 말이 없어진다.

후작과 재혼한 새 부인이 데려온 딸인 마넷은 후작의 묵인 아래 정부인의 딸인 데이블린을 괴롭혀왔다.

실상을 따지면 가짜는 이 애라는 걸 모두가 알았지만 구태여 언급하지 않았던 진실이다. 마넷은 착해빠진 여동생 '데이'가 자신을 대놓고 깎아내린 게 믿기지 않는지 놀란 듯 했다.

'그랬겠지. 바보 같은 '데이'라면 이 지경까지 참고 있었을 테니.'

하지만 이 정도로 놀라면 곤란했다. 데이블린은 계속해서 고용인들 보는 앞에서 친절하게 마넷의 처지를 일깨워 줄 것이다. 마넷을 지켜줄 후작 부인 이졸데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쁘게 듣진 말고 생각을 해 봐. 네 엄마가 운 좋게 후작 부인이 됐다고 너까지 후작 영애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네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다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그래."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거지 같은 게 감히 어디서...!"

사랑스러운 소녀 노릇은 집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낸 마넷을 향해 데이블린이 슬쩍 웃었다.

"맞아. 내가 집에서 좋은 취급 못 받긴 하지. 근데... 이런 나도 어디 나가면 래지스티나 후작 영애 소리는 듣는다? 얘. 너보고는 뭐라고 부르니?"

"..."

마넷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대답이 왜 이리 굼떠. 레이디가 묻잖아, 평민 계집애야."

이 자리의 그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군림하던 마넷은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데이블린은 진심으로 재밌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고 마넷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늘 생기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마넷의 선한 눈망울이 갈기갈기 찢겨 굴욕감에 몸을 떨 뿐이었다.

부어올라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마넷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데이블린은 일그러진 얼굴로 웃으며 속삭였다.

"알만하다. 귀족들은 천박한 태생이 교육으로 극복되지 못한다고 믿거든..."

"난 너같은 허울뿐인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인정하신 진짜 딸이야!"

아무 노력없이 이 자리에 오른 마넷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됐다.

자신은 가문의 피가 섞이지 않은 평민이지만, 데이블린이라는 정식 후계자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운이 좋아 모든 걸 쟁취하게 될 거라고 믿었다.

"네 생각처럼 아버지 총애로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네가 흠모하는 아그네스 왕녀님도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날 일 없었을 거야."

"그만해."

"네가 왕녀님처럼 능력이 있기를 해, 나처럼 혈통이 괜찮기를 해? 넌 그냥 엄마가 후작님 하나 잘 구워삶은 것밖에 없잖아. 주제도 모르고 왜 나대는지 모르겠네."

데이블린이 마넷을 향해 진심으로 안쓰럽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자존심이 꺾인 마넷은 분노와 수치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비명을 질렀다.

"너...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그러렴. 네 억지 받아주느라 어머니도 참 피곤하시겠다."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자 얼굴이 빨개진 마넷은 벌떡 일어나 수프가 엉겨 붙은 치맛단을 끌어안고 이 층으로 올라갔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그 애를 부축하거나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 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마넷의 패배는, 이 자리의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는 데이블린의 혈통을 증명했다.

말로는 '아가씨'라 높여도 실상은 새끼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그녀였다.

그런데 저들이 받들어 모시는 마넷이 혈통 얘기 한 번에 말문이 막혀 자리를 피하자 고용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봤다.

"너희들이 진작에 잘 했으면 우리 마넷이 괜히 나와 얻어맞을 일은 없었을거야."

데이블린은 술렁이는 그들을 가소롭게 바라보았다.

"내 비위를 어련히 잘 맞췄으면 마넷의 귀여운 얼굴이 저 지경까진 안 됐을 거 아니냐고."

"..."

"그러니 다들 미리 잘하자, 응?"

장난스럽게 말한 데이블린은 끈적한 수프가 엎어진 바닥에서 발을 떼고 걸음을 옮겼다. 다음은 명령을 어긴 하녀의 차례였다.

엎어져 박해받은 척하던 하녀는 펼쳐진 상황을 보고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얼떨떨해하는 얼굴이었다.

'저렇게 어리숙해서야.'

"너. 집안 시끄럽게 이게 다 뭐야? 너 때문에 얌전히 자던 애까지 끌고 나왔잖아."

"네, 네?"

"어제 내가 아침 시중을 들라고 명령한 거 기억 안 나? 안 나면 큰일인데. 벌써 기억력이 떨어지는 하녀를 쓸 정도로 관대한 집안은 아니라서."

물론 데이블린에게 하인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능력따윈 없다. 하지만 마넷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 마당에 다른 이들이 아무도 끼어들려 하지 않자 두려움이 솟은 하녀가 다급하게 항변했다.

"아닙니다! 저 멀쩡해요! 쓰임새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요."

"아, 그럼 기억력도 좋은데 내 말은 무시한 건가?"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요..."

데이블린은 조악한 변명을 듣다가 지루한 듯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너희들 짰니? 어떻게 된 게 나흘째 하녀를 셋이나 바꿨는데 아침에 깨우러 오는 애가 없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냥."

하녀가 눈물을 매달고 양손을 싹싹 빌었다. 성질부리는 마넷에게 그러듯 성심성의껏 아가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를 쓰는 꼴이 혐오스럽다.

데이블린은 짓밟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굴종하는 남에게 쾌감을 느끼는 악취미는 없었다.

애원하는 하녀와 그녀를 위협하는 자신에게서 치밀어오르는 역겨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래지스티나 후작 영애, '데이'가 받아야 했을 대접이었다. 데이블린이 되찾아와야 할 할 힘이기도 했다.

데이블린은 팔짱을 끼고 무심히 그 모양을 내려다보며 적당히 시간을 끌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부들대던 하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기 전에 데이블린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짐짓 너그러이 웃어 보였다.

"무슨 이런 일로 무릎까지 꿇어."

"정말 흑... 죄송해요."

아까 딱 한 대 때린 하녀의 뺨이 발그스름하게 부어 있었다. 데이블린은 그것을 안타까운 양 바라보다 주변을 둘러봤다. 얼어붙은 고용인들 사이로 집사가 서 있었다.

완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은 데이블린이 하녀를 때리고 마넷에게 패악을 부리는 꼴을 다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다. 데이블린은 그가 어떤 인간인지 텍스트로 읽어본 적 있다.

제 밥그릇을 챙길 줄 모르는 후작 영애에게 무관심하던 집사는 데이블린의 바뀐 모습에 마넷과 그녀를 저울질하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더욱더 뻔뻔하고 여유롭게 굴어야 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선 사람을 부리는 것에 미숙하던 '데이'의 손끝이 데이블린의 의지에 따라 스스럼없이 집사를 가리켰다.

"험프리, 이 층 가서 마넷 좀 챙겨. 혼자 넘어져서 다친 모양이지 뭐야."

"...아가씨는 어디 다치신 곳이 없으십니까?"

"나야 보다시피 멀쩡하지. 그보다 하녀들을 너무 굴리는 거 아냐? 바빠서 내 시중도 잊은 모양인데, 아침엔 눈치껏 일 좀 빼 줘. 아침부터 이게 뭐니?"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끝낼 즈음에 집사는 이미 계산을 마친듯해 보였다. 고민이 길지 않아서 좋았다. 집사가 내린 결론이래 봤자 혹시 모를 보험으로 데이블린에게도 한 다리 걸쳐놓자는 것 정도겠지만 그게 어디일까.

후일을 위한 작은 투자 정도의 도움만 있어도 충분했다. 데이블린은 일 년도 걸리지 않고 래지스티나 후작 영애가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되찾을 자신이 있었다.

"좋아. 그럼 넌 뺨에 부기만 식히고 내 방으로 와서 옷 갈아입는 것 좀 도와줄래?"

"아니요. 지금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아가씨!"

"그래? 그럼 입을 만한 실내복 챙겨서 따라와."

데이블린은 여유롭게 실내화를 끌며 이 층으로 올라가다가 휙 몸을 돌렸다.

"다들 가서 일 안 하고 뭐 해?"

"얼른 흩어져서 할 일 해!"

데이블린은 마넷을 짓밟고 비아냥댔던 게 무색하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용인들을 재촉했다. 얼빠진 얼굴로 일감을 들고 서 있던 자들이 뒤이은 집사의 호령에 서둘러 흩어졌다.

하녀가 옷과 물을 챙기러 간 사이, 데이블린은 제 방으로 향하다 단단히 닫힌 마넷의 방문을 지나쳤다.

원작에서 읽은 내용처럼 '건방지게 굴었던' 데이블린을 다락에 가두고 마넷을 달래러 가는 하인은 아무도 없었다.

후회물 소설에 빙의됐다는 것을 깨달은 건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후회의 그림자 앞에서>를 떠올린 것은 아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받게 됐는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 이곳이 어디고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 없었다.

데이블린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던 건 가끔 마주치는 마넷에게서 듣는 '쥐새끼'라는 무례한 호칭이었다.

자신의 갈색 머리카락에 콤플렉스가 있는 마넷은 데이블린의 희귀한 은발을 쥐의 털가죽 색깔로 빗대어 놀렸다. 기분 나쁜 쥐 색깔 머리카락을 숨기고 다니라고 욕하면서 제 머리가 금발이라고 우겼다.

데이블린에게 신분과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는 언니와 무관심한 아버지, 학대를 부추기는 새어머니까지. 성질을 죽이지도 못하고 딱 미쳐버리기 직전에 후작 부부가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애송이 열여덟 살 소녀와 고용인들만 남은 저택은 데이블린이 다락을 빠져나와 반란을 꾀하기 더없이 좋았다.

마음껏 패악을 부린 덕에 애매모호한 지위를 얻은 상황에 후작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행복한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왔을 후작 부인 이졸데는 당당히 일 층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데이블린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뜻 모를 소리를 했다.

"우리 딸, 못 본 새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데이블린은 의뭉스러운 웃음으로 화답했다.

"어머니도요. 여행이 즐거우셨나 봐요."

"..."

겉보기엔 사이좋은 모녀의 덕담 같으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뒤늦게 저택으로 들어온 후작은 하인에게 외투를 건네고 데이블린을 힐끔 쳐다봤다.

"오셨어요. 아버지?"

그는 전 부인과 꼭 빼닮은 둘째 딸의 인사를 무시한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방 안에 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던 마넷이 이 층 계단을 서둘러 뛰어 내려왔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마넷. 잘 지냈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어머니가 보고싶어서요."

마넷은 데이블린을 노려보며 이졸데와 포옹을 나눴다. 그리고 쭈뼛거리며 후작에게도 다가갔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버님. 즐거운 여행이 되셨길 바라요."

마넷같이 애교많은 딸이 건네기엔 다분히 거리감 있는 말투였다. 딸보다는 고용인들이 사용할 법한 말투에 후작이 만족한 듯 콧수염을 씰룩였다.

"마차를 오래 타니 고되구나. 식사 하러가자."

데이블린은 미소지은 채로 식당으로 향하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반겨주는 이 하나 없어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이미 이 소설의 결말을 본 데이블린에겐 확신이 있었다. 저택을 비롯한 이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건 자신이라는 확신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머지않은 미래에 왕세자 디트리히의 손에 무너져 자신의 손에 들어오겠지만, 그걸 기다리기엔 데이블린도 잃을 것이 많다.

남자주인공 디트리히를 사랑하고, 오해한 그에게 버림받고, 다시 주워져 이용당하다 그가 후회할 때까지 기다려야했다.

그 시간동안 찢겨나갈 자신의 마음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데이블린은 소설 속에서까지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덮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녀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했다.

데이블린의 벼린 날이 겨누어지는 건 그녀의 구원자 디트리히 왕세자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아가씨...도 식사를 하시나요?"

데이블린은 생각을 끊고 고개를 들었다. 준비한 식사를 나르던 하인이 당황한 척 물었다. 모르는 척 물으면서 자신을 물먹일 생각인가본데, 눈치가 없다.

아마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하인일 것 같았다. 그는 후작의 성격에 대해 너무 몰랐다.

"그러면? 내가 딸을 굶기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아니나다를까 후작의 심기불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철저한 방임을 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학대에 가담했다고 생각지 않는 인간이다.

그래서 왕세자 디트리히에게 응징당할 때도 그는 '데이'에게 매달리며 그렇게 말했다.

'데이블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나한테 고마워 해야한다. 내가 널 바깥에 팔아넘기기를 했더냐, 아니면 몹쓸 짓을 하기를 했더냐? 곱게 키워줬더니 어떻게 이렇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피식. 데이블린은 칼을 빼어든 왕세자의 서늘한 눈빛에 벌벌 기던 후작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생각보다 컸던지 자리에 있던 모두가 데이블린을 쳐다봤다.

"아버님. 제 생각엔 저 자가 아버님을 음해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식사에 끼었기로서니,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으으음...!"

후작의 불편함 담긴 헛기침 소리가 조용한 실내를 울렸다. 하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때 집사 험프리가 빠르게 다가와 하인을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여긴 내가 맡을테니 자네는 나가서 다른 일 하고 오게."

"죄, 죄송합니다. 집사님."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자라 뭘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영주님. 노여워 마시고 오늘 좋은 백포도주가 들어왔으니 맛을 보시지요."

험프리는 능숙하게 변명하며 하녀에게 와인병을 받아들고 코르크를 땄다. 후작은 못들은 척 자리에 앉았고 데이블린도 냉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반대편에서 눈이 빠져라 노려보는 마넷의 시선과 이졸데의 차게 굳은 얼굴이 보였지만, '데이'라면 가시방석같았을 이 자리도 데이블린에겐 그저 맛있는 식사 자리였다.

"시장하군."

후작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고용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데이블린은 눈 앞의 잘 구워진 새끼양구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반들반들하게 잘 닦인 식기들을 다루는 법을 모른다. 아마, 그건 '데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후작과 이졸데, 마넷은 각자 식사를 시작했다. 마넷은 부어오른 뺨이 씹기 불편한지 깨작거리며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다.

"마넷.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니?"

그러자 이졸데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마넷의 빨갛게 부은 뺨은 여상히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마넷은 엄격한 후작이 날벼락을 내리지 않을까 힐끔거리다 말했다.

"편식한 게 아니라 얼굴이 아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

"뺨이 부었어요. 데이블린에게 맞았거든요."

"..."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뚝 멈추고 자연히 시선이 데이블린에게 모였다. 그녀는 태연하게 싱긋 웃었다.

"죄송해요. 마넷이 남들 앞에저 저를 쥐라고 놀려서 그만. 너무 부끄러워서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게요."

사과치고 태연하고 성의없었다. 사과 받는 대상도 마넷이 아닌 부모님을 향해서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마넷이 쥐고 있던 포크를 테이블에 세게 내리찍었다. 쿵! 소음과 함께 후작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식사 중에 무슨 소란이냐?"

"아... 죄, 죄송해요. 아버님."

"쯧."

불만스럽게 혀를 차는 후작 때문에 화제가 흩어졌다. 마넷은 더 징징거리고 싶은 모양이지만 후작은 맏딸의 얻어터진 뺨보다 못배워먹은 식사 예절을 더 언짢아했다.

이졸데는 남편을 한 번 보았다가 이내 웃으며 넘겼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다?"

"어, 어머니!"

"데이블린이 어려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었을거야. 네가 언니잖니. 조금만 이해해주렴."

"하지만."

"마넷. 여기까지 하자꾸나. 그러고 네 잘못도 있다. 놀 때 조심했었어야지."

다짜고짜 식탁을 뒤집지는 않아도 다친 자식을 보고 무언가 보복이 돌아올 줄 알았건만 이졸데는 뜻밖에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것 같다.

아무래도 후작의 기분이 나쁜듯하니 눈 감아주려는 모양이었다.

마넷은 충격받은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금이야 옥이야 기른 딸이 두꺼비같은 뺨을 하고서 나타났는데 '놀 때 조심하라'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졸데는 자신을 마넷의 장난감으로 보는 게 틀림없다. 데이블린은 그녀의 관용을 속으로 비웃었다.

이졸데가 눈치채지 못한 몇 주 사이, 되려 장난감으로 추락한 건 마넷이다. 데이블린은 이 집안에서 마넷을 다루는 법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마넷이 울먹이며 눈이 빠질듯 노려보는 걸 모른 척 하던 후작이 불편한 헛기침 소리를 냈다.

"마넷. 어른 앞에서 적당히 해라."

후작이 정해놓은 한계선을 깨달은 마넷이 증오를 빠르게 갈무리했다. 이제 약을 올려봤자 그녀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후작 앞에서 주제를 알고 선을 잘 지키기 때문이었다.

이졸데는 감정을 삭이는 딸을 차가운 눈빛으로 보다가 분위기를 환기하듯 후작에게 말을 걸었다.

"음, 저 애가 왜 저러지? 그보다 여보. 포도주가 참 좋네요."

"..."

"험프리. 영주님이 포도주를 즐기시니 좀 더 주문하는 게 어때요?"

"저장고에 이미 충분하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마님."

데이블린은 은식기의 날카로운 첨단으로 양고기 살갗을 찢으며 조소했다. 저게 어딜봐서 후작부인이 받을 대접인가.

남편은 말을 무시하기 일쑤에 집안 물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집사는 참견을 거부한다.

'트로피 와이프가 따로 없네.'

찢겨진 고기 틈새로 흘러나오는 붉은 소스가 마치 피같다. 데이블린은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 이졸데를 바라보며 날짜를 셈했다.

이대로 저 여자에게 짓눌려 자신의 모든 것을 마넷에게 빼앗길 생각은 없다. 만약 제 몫을 되찾겠다고 발버둥 친다면, 일이 커지기 전에 둘 중 하나는 찍어내어 지는 게 이 집안의 수순이겠지.

신경전은 길게 끌어서 좋을 것이 없으니 후작 부부 사이에 정통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끝난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데이블린은 집사와 남편을 향해 어색하게 웃는 이졸데의 낯짝을 음미하며 나이프 끝에 묻은 붉은 소스를 핥았다. 어느때보다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후작 부부가 돌아오고 한동안 저택이 조용했다. 데이블린의 반항도 훨씬 잦아든 것처럼 보였다.

일단 수틀린다고 다 보는 앞에서 마넷의 머리채 잡는 일이 없어졌으니 고용인들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부는 고소하다는 듯 저들끼리 모이면 데이블린을 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요즘 막내 아가씨가 조용하구먼."

"사자 돌아오니 여우가 꼬리를 만 거지, 뭘."

데이블린은 그들 곁에 바싹 붙어 속삭였다.

"지금은 사자가 없는데 여우를 어떻게 피할거지?"

"아, 아가씨!"

쑥덕이던 고용인들은 가슴께도 닿지 않는 키 작은 소녀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응석받이 맏딸 마넷보다 한 살 어린 아이건만, 그녀의 차게 식은 붉은 눈은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곤 했다.

"흠, 흠흠. 저는 일 층 복도 청소를 하러 이만."

"저는 창문 닦던 중이었어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데이블린은 이 집에서 여전히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이빠진 톱니바퀴 신세였다. 꽁무니를 빼는 고용인들의 뒤통수를 노려보다 문득 복도 창 밖에 뻗은 싱그러운 나뭇가지에 시선이 닿았다.

싱그러운 여름이 저택 정원에 움트면, 집안은 마넷의 생일 준비로 바빠진다. 데이블린은 지난 봄 데뷔탕트를 치른 뒤 처음 맞는 마넷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원작에서 데이블린의 불행이 시작된 분기점이었다.

과거엔 힘 좀 쓰는 고위귀족이었던 래지스티나 후작가는 선대때 도망치듯 수도를 떠나오면서 지금에 와선 돈만 많은 흔한 귀족가에 지나지 않게 됐다.

때문에 마넷을 찾아올 이는 대부분 어중이떠중이에 불과하나, 단 한 명. 왕녀 아그네스만은 이야기가 달랐다.

"조만간이군..."

이 생일 파티를 기점으로 마넷은 동경하던 아그네스 왕녀와 만나게 된다. 본래라면 만날 일이 없었겠지만, 왕녀는 수도에서 백작 영식 하나를 잡아 고문한 죄로 이곳 벤크번드로 반 년간 근신령이 떨어진 상태다.

낯선 지방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워야 할 처지가 된 왕녀는 후작의 평민 딸로 유명한 마넷 래지스티나를 구경할 겸, 반쯤은 조롱할 생각으로 찾아오고...

'예상 외로 자신을 너무 동경하니 마넷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지.'

왕녀가 마넷의 편이 된다는 건 '데이'에게 불행이었다. 비천한 출신성분 때문에 사교계에서 좀처럼 힘을 못쓰던 마넷에게 아그네스는 혈통의 정통성도 이길 강력한 힘이 되어준다.

알고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데이블린의 목표는 어떻게든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아그네스가 마넷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했다.

아그네스만 얌전히 돌아가준다면 지지대 없는 마넷을 무너뜨리는 것쯤은 쉬웠다. 그래, 아그네스만 돌아가준다면.

'정확히는 왕녀의 후원자이자 흑막인 세실 키시어드 대공이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마넷의 생일이 어느덧 코앞이었다.

고용인들은 저택을 쓸고 닦기 바빴으며 마넷은 기대에 들떠 드레스를 사들이고 더 사랑스럽고 우아한 소녀로 보이기 위해 가정교사를 들볶았다.

고대하던 생일이 망쳐질 줄도 모르고 기대에 부푼 마넷이 가소로웠다.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저택을 돌아다니던 데이블린은 새로 산 드레스를 입은 마넷과 마주쳤다. 마넷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감싸쥐었다.

"시궁창 냄새."

"..."

"넌 옷이 그것 뿐이야? 고귀한 후작 영애께서 그딴 옷이나 입고,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갈텐데 또 가만히 있는 사람 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다. 한 방 먹여서 속 시원해하는 마넷을 빤히 보던 데이블린이 피식 웃었다.

"난 괜찮아. 넌 누런 개털머리니까 금붙이라도 안 걸치면 이 집에서 키우는 개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뭐?"

"난 조부의 은발을 빼닮았잖아. 발가벗고 다녀도 순혈 래지스티나라는 건 온 세상이 다 알지."

은발은 데이블린이 가문에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재산이었다. 후작은 아내의 정숙함을 트집잡아 후작부인은 바꿔버렸지만, 전부인이 남기고 간 아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데이블린의 은사처럼 선명한 머리를 깨닫자 골칫덩이 차녀를 방계로 떠넘기거나 가문 밖으로 내쫓지도 못했다. 데이블린은 마넷의 꼴을 보란듯이 훑었다.

거추장스러운 레이스가 덕지덕지 붙은 드레스는 둘째치고 알알이 굵은 보석이 박인 모자와 화려한 비브 목걸이에 이르러선 한숨마저 쉬었다.

"그런데, 지금 꼴은 너무 졸부같다. 그렇게 안 꾸며도 우리집이 돈 많은 건 다들 알고있어. 오히려 싸구려 출신에 자격지심 느끼는 티만 나겠네."

"뭐? 너 이게 진짜!"

마넷은 손을 번쩍 들어올렸지만 함부로 내려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랬다. 마넷의 폭력은 남을 부추기는 방식이다.

그게 적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인지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결벽적 사고로 비롯된건진 몰라도 허세 부리느라 들어올린 손이 우스웠다.

"지금이 네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일테니 실컷 사치해."

그리고 데이블린은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다. 화난 마넷이 계단을 쾅쾅 짓밟으며 일 층으로 내려갔다. 꼭 저렇게 화났다는 티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건가?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방 안으로 돌아가려던 데이블린은 일 층에서 마넷의 기쁨에 찬 비명 소리를 들었다.

"정말이에요?"

"그래, 마넷. 정말 잘됐구나."

짜증내던 게 언제였냐는듯 돌변해서 좋아죽는 마넷에게 이졸데가 다정하게 말했다.

마넷이 별 것도 아닌 일에 난리치는 거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지만, 음전한 후작부인을 연기하는 이졸데마저 시끄러우니 의아해졌다. 데이블린은 계단 난간에 손을 대고 그들의 이 층에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아그네스 왕녀님이 제 파티에 오고싶어 하신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일단 영주님께 먼저 허락 맡아야 해. 영주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니까."

"싫어하실리가요! 아그네스 왕녀님은 국왕 폐하께서 가장 사랑하는 혈족이라고요."

"그리고 널 중앙 사교계로 초대하실 분이시지. 귀여운 내 딸아."

이졸데가 마넷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볼을 쓰다듬었다. 난간을 잡고 있던 데이블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예상했던대로 아그네스가 온다.

본래라면 국왕에게 벌을 받고 근신 중인 아그네스가 파티에 참여한다는 건 말도 안되지만 국왕의 총애는 그걸 눈감아 줄 것이다.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새삼스럽게 긴장됐다.

원작에서 아그네스는 마넷을 이용하기 위해 그 애를 쓸모있는 말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단순한 평민이 아닌 자신의 신하가 될 진짜 래지스티나 후작으로 만들어야 했던 거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거슬리는 건 래지스티나 후작의 적녀 '데이'였고 힘 없고 순한 '데이'는 손 놓고 당하기만 했다.

'내가 아그네스를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을까?'

데이블린이 고심하는 사이 왕녀의 편지를 품에 안고 기뻐하던 마넷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서재에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잠깐, 마넷. 아직 너무 섣불러. 며칠 내로 영주님 기분을 봐서 내가 말씀드리마."

"하지만 그랬다가 왕녀님이 다른 파티에 가시면요? 제가 왕녀님을 거절한 버릇없는 계집애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흥분한 마넷은 이졸데의 만류를 듣지 않았고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닫힌 문은 잠시간 조용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벌컥 문을 열고 나온 후작과 그 뒤를 따르는 시무룩한 마넷을 보아 상황이 그 애에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았다.

후작은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진 편지를 내보이며 물었다.

"이졸데. 이 편지 정말인가?"

"네. 방금 도착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왕가의 직인을 쓸 수 있는 건 폐하를 제외하고선 디트리히 왕세자 전하와 아그네스 왕녀님 뿐이니..."

그때 편지를 노려보던 후작이 이졸데의 말을 끊고 호통 쳤다.

"왕세자 전하도 아니고 왕녀의 편지를 어디다 쓰란 말이야!"

"여, 여보."

"왕녀는 어차피 정식 후계자도 아닌데 괜히 초대했다가 왕세자 전하의 눈 밖에 나면 그 뒷감당은 어쩌려고!"

"하지만 왕녀님이 와주신다면 마넷에게는 큰 기회예요."

"...내 가문보다, 마넷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 이졸데?"

후작의 눈이 희번덕 빛났다. 그러자 이졸데도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당신은 결혼하기 전 후작가에 걸맞는 부인이 되기로 약속했었지."

"..."

"이럴거면 켈시가 나을 뻔 했군."

그때 무표정한 데이블린의 잇새로 까드득 이를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좋을 땐 이졸데와 놀아나며 후작부인을 바꿔치기 하더니 이제와 전부인 켈시가 나았다니.

데이블린은 당초 마넷을 먼저 치우고 가문을 먹은 뒤 후작을 죽여버리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어차피 자신에겐 왕세자 디트리히도 달가운 손님은 아니다. 이대로 디트리히와 마주쳐 놈이 '데이'를 사랑하고 오해하는 날을 기다리느니, 아그네스를 끌어들여 후작을 엿 먹이는 건 어떨까?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썩 괜찮은 계획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미소지은 채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 층에 데이블린이 있을줄 몰랐던 후작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데이블린은 계단 난간에 손을 올리고 착한 딸을 흉내내며 얌전히 고개를 기울였다.

"아그네스 왕녀님은 지금보다 더 부강한 권력을 얻게 되실거예요."

"뭐?"

"디트리히 왕세자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실거라고요. 이르면 내년 봄에 왕녀님의 봉작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후작은 갑작스러운 말이 이해가지 않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이렌 백작이 되실거라고 들었어요. 아직 디트리히 왕세자 전하도 받지 못한 작위죠. 못 믿겠다면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역시나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다. 후작도 모르는 일을 바깥과 교류 하나 없는 데이블린이 알고 있는 건 부자연스러웠다.

"집안에 갇혀 사는 제가 바깥 소식을 어디서 듣겠어요."

데이블린의 손이 후작의 뒤에 찌그러져있던 마넷을 가리켰다.

"다 마넷에게 들은 거죠."

"어, 어...? 무슨..."

황급히 부인하려던 마넷은 자신을 돌아보는 후작을 올려다봤다. 그때 마넷이 후작의 눈빛에서 무엇을 읽어냈는지 알 수 없어도 거기 담긴 탐욕과 헛된 기대는 데이블린에게 직접 본듯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물었다.

"그렇지 않니, 마넷? 네가 댄스 교습에서 만난 영애들에게 들었다고 그랬잖아. 아주, 유력가문의 영애께서 특별히 너에게만 알려준거라 했었지."

"아... 그러니까, 그게..."

"왜 말을 똑바로 못 해. 저 애 말이 맞는거냐?"

마넷은 다그치는 후작 너머로 데이블린의 불길하게 올라간 입꼬리만 보였다.

'나를 두둔해서 저게 얻는 게 대체 뭐야?'

왕녀가 생일 파티에 오는 건 온전히 마넷의 이득인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데이블린에게 떨어지는 건 없었다. 무언가 속셈이 있겠지.

최근들어 아주 미쳐버린 데이블린은 상종할 수록 밀리는 기분이 들어 재수 없었다. 저 악독한 것이 속내를 드러냈으니 분명 꿍꿍이가 있을텐데도 쥐새끼의 얕은 수에 넘어가고 싶었다.

'왕녀님이 오시는 걸! 바로 그 아그네스 왕녀님이!'

평민 출신이라고 멸시하던 영애들의 콧대를 꺾어줄 기회다. 그리고 적자인 디트리히 왕세자와 왕위를 놓고 당당히 겨루는 아그네스는 마넷의 우상이었다. 아버님의 분노를 샀다는 이유로 이렇게 허무히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갈팡질팡하던 마넷은 후작이 한 번 더 호통을 치려는 기색이 보이자 눈을 질끈 감고 외쳤다.

"마,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긴가민가해서 데이블린에게만 몰래 말해줬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

"로버츠 은행장님 댁 영애요. 로버츠 자작님이 은행 일 때문에 수도를 자주 왕래하셔서 소식이 빠르세요. 네, 맞아요."

마넷이 거짓말을 하느라 흘리는 식은땀을 긴장감이라고 여긴건지 후작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지금도 순식간에 계산을 해보고 있을 것이다.

'손 닿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 있는 왕세자를 노리느니, 봉작을 앞둔 왕녀에게 줄을 대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겠지.'

하지만 그것도 파티의 주인공인 마넷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 데이블린은 부들부들 떠는 마넷을 흘낏 바라봤다.

생일 파티에 참석했더니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시당한 아그네스의 기분이 상할거고 그것만으로도 마넷과의 인연, 후작의 기대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저 천방지축을 어떻게 조용히 가둬놓을지가 문제군.'

후작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까까지만해도 청천벽력같던 왕녀의 편지가 지금보니 꽤 괜찮아보였다.

그것도 마넷이 보낸 초대장에 답장이 온 게 아니라 왕녀가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으니 마넷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걸지도 모른다. 후작의 미간에 팬 주름이 서서히 사라졌다.

'징그러운 새끼.'

그는 이내 안정을 되찾고 마넷의 어깨에 손을 턱 얹었다.

"자세한 건 내가 내일 알아봐야 알겠다만... 정말이라면 네가 큰 일을 해냈구나. 마넷."

"아닙니다. 아버님..."

"일단 편지는 내가 갖고 있으마. 들어가서 쉬어라. 이졸데! 마넷을 방 안까지 안내해 줘."

그리고 후작은 도로 서재에 들어가버렸다. 그때까지 꼼짝않고 서 있던 이졸데의 몸이 스르륵 뒤를 향했다. 데이블린은 찰나간에 지어낸 이야기를 이졸데가 캐묻기 전에 난간에서 몸을 떼고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왕녀님께 초대장을 보내도 되는 거예요?"

"..."

이졸데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데이블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득, '데이'가 갖혀 살았던 다락방을 떠올렸다.

마넷이 어딘가 갇힌다면 거기가 제일 주제파악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실없는 미소를 흘리며 들으란듯이 세게 방문을 닫았다.

"뮐러 부인. 와주셨군요!"

"마넷 양의 생일인걸요. 왕녀님도 행차한다는데 제가 빠질 수가 있나요. 우리 그레이스도 함께 왔어요."

데이블린은 이 층 테라스 창가에서 이졸데와 손님들의 대화를 훔쳐듣다 실소를 머금었다.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고 다녔나보지.'

이졸데가 후작부인이 된 이래, 후작가엔 파티다운 파티가 열린 적이 없다. 이졸데는 상인의 딸로 웬만한 하급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교육을 받았으나 어느 귀부인도 그녀의 파티에 참석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파티들은 갖은 핑계 끝에 미뤄지는 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넷의 데뷔탕트 이후 첫 생일이었고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이 파티에 참석할 손님은 손에 꼽았는데, 뜻밖에 아그네스의 방문으로 저택이 쉴 새없이 붐볐다.

평민출신 마넷을 눈여겨 보는 왕녀라면 제 딸도 선보일 욕심으로 친딸에 조카딸까지 박박 긁어온 신사들도 잔뜩 거드름을 피웠다. 선대 후작이 수도를 떠난 이래 이런 우월감을 느껴본 적 없는 후작도 기분이 아주 좋아보였다.

"귀여운 마넷이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데이블린이 손을 가볍게 털며 미소지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마넷은 기대에 들떠있던 게 무색하게 지금은 다락방에 갇혀있다. 다들 아그네스의 참석에 들떠 주인공인 마넷이 없어진 줄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제 아그네스가 도착하면 마중 나올 마넷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고 파티는 엉망이 되겠지.

아그네스가 후작에게 뭐라 쏘아붙일지 몹시 기대되지만 아쉽게도 그걸 듣진 못할 것 같았다.

마넷이 없어진 상황에 사이가 나쁜 자신만 멀쩡히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의심받겠지. 차라리 둘이 같이 없어져 유괴 따위로 오해하는 편이 시간 끌기는 나았다.

물론 모든 일이 끝나면 후작에게 엄청난 보복을 받겠지만 돈도, 도와줄 사람도, 지위도 없는 이 상태에서 마넷과 아그네스의 만남을 갈라 놓으려면 이 수밖에 없었다.

소란이 일어나고 끝날 동안 복잡하게 얽힌 후작저 정원에 숨어있을 요량으로 저택 이 층 발코니에 엉덩이를 걸쳤다. 뛰어 내릴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보니 생각보다 높았다.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계단을 쓰다가 고용인과 마주칠 수도 있었고, 저택 현관으로 나갈 수도 없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데이블린은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후원의 풀숲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냈다. 데이블린은 흠칫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하인인가? 아니면 손님?'

어느 쪽이든 들키면 곤란하다. 다시 난간 너머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없었다. 망설이는 사이 시꺼먼 인영이 풀숲에서 확 튀어나왔다.

"아, 진짜."

상대는 머리카락과 옷에 붙은 풀잎을 털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아그네스는 사람을 뭐 이딴 곳에..."

달빛에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을 본 데이블린은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난간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질 뻔하며 저절로 신음이 튀어나왔다.

"앗!"

그러자 데이블린의 목소리를 들은 남자가 움직임을 뚝 멈추고 옷을 터느라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발코니에 매달린 데이블린을 보고 눈이 살짝 커지나 싶더니 이내 심드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데이블린은 그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남자는 언제가 읽었던 묘사대로 키가 몹시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부 바다 너머에서 왔다는 이민자들의 특징인 가무잡잡한 피부 탓인지 그는 귀한 신분에도 거친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원작의 '데이'가 이 남자를 떠올릴 때 묘사했던 비열한 입매, 무기질적인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데이블린의 꼴이 재미있기라도 한듯 유쾌한 비웃음을 걸고 물었다.

"뭐야. 벤크번드 여자들은 자살을 이 층에서 하나."

빛 한 점 없는 한밤의 후원에서도 형형한 남자의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게슴츠레 접혔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걸. 거기서 떨어져봤자 뼈만 부러지고 죽지는 못할 거야."

데이블린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 나라 귀족 중에서 저런 특징을 가질만 한 사람이라고는 왕가의 방계이자 아그네스의 후원자인 세실 키시어드 대공 하나 뿐이었다.

'이 남자가 여기 있는 건 왕녀가 받은 근신령과 무관할테고. 설마 왕녀의 파트너로 동행한건가?'

예상치 못한 이와의 조우로 데이블린이 얼어붙어 있던 사이, 웃으면서 그녀를 보고 있던 세실이 돌연 고개를 돌렸다.

조용하던 후원에 다급한 외침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넷 아가씨!"

"아가씨. 여기 계십니까?"

'젠장.'

세실이 나타났다는 건 아그네스 왕녀가 이미 도착했다는 이야기다. 그녀에게 보일 마넷이 사라졌으니 고용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덩달아 다급해진 데이블린은 세실을 무시하고 일 층 덤불 위로 뛰어내렸다.

"윽!"

최소 발목을 접지를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고통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잘 안착한 듯한 안정감만 느껴졌다. 눈을 뜨니 남자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이 가장 먼저 보였다.

남자가 잘생긴 얼굴을 싱글거리며 떨어진 데이블린을 끌어안고 있었다.

"안녕?"

"당신이 왜..."

'데이'의 서술을 따라가면 세실은 중반부에 아그네스의 악행을 도우며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벌써 나와서는 안됐다.

무언가 잘못되어감을 느꼈다. 벌써부터 원작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저기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큰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놀라서 눈을 크게 뜬 데이블린과 세실의 시선이 맞부딪쳤다. 그는 초조해하는 데이블린을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 씩 웃더니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바싹 붙였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봐."

그리고 데이블린의 팔을 조심스럽게 움켜쥐고서 그녀를 확 잡아당겼다. 바로 직후 하인들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다.

"마넷 아가...! 헉."

마넷을 찾느라 정신없던 그들은 난데없이 팔을 잡힌 채 눕게 된 데이블린과 방해받아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린 키시어드 대공을 발견했다.

"뭐야, 시끄럽게."

"아, 저. 다름이 아니라 주인 아가씨께서 보이지 않아서요."

그러자 세실의 눈썹이 가볍게 치켜 올라갔다. 연회장에서 본 후작과 비슷한 은발 머리를 보고 그는 당연히 이 소녀가 오늘 생일을 맞았다는 래지스티나 후작 영애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뜻밖에 하인들이 찾는 건 다른 이인 것 같았다.

'그럼 이 여자는 뭐지?'

고개를 돌리니 데이블린의 날카롭게 치뜬 눈이 세실을 노려보고 있었다. 후작의 딸인가 싶어서 끼어들었는데 아니라니.

잠시 김이 샐 뻔하다가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이 여자가 후작 영애가 아니라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실은 데이블린과 마주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뒤에 서 있는 고용인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럼 여긴 용건 없겠군. 방해되니까 꺼져."

"하, 하지만."

데이블린을 알아본 하인 하나가 말을 더듬었다. 고용인들이 파티에 참석한 귀족의 얼굴을 다 알아보는 건 아니라 이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진 몰랐지만, 파티 손님인 귀족 남자가 막내 아가씨와 붙어있는 게 신경 쓰였다.

"자네! 빨리 오게. 아가씨를 찾지 못하면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야."

"그래도 작은 아가씨가..."

망설이는 하인을 다른 고용인이 팔을 잡고 끌고 나왔다. 다른 이들은 일부러 데이블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린 채였다.

'마넷을 찾는 게 급선무다 이거지.'

또한 그들은 가문의 천덕꾸러기인 데이블린을 구하기 위해 척 봐도 고위 귀족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맞설 용기 따위 없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데이블린은 세실을 몸을 밀쳐냈다. 기분이 더러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순순히 밀려난 세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꼴을 보니 좀도둑질했나?"

"뭐?"

"아니지. 이 차림새는 하녀인가."

데이블린의 몫으로 배정됐어야 할 예산은 전부 마넷이 차지했으니 그녀의 옷은 항상 낡은 하녀복을 고쳐 기운 허름한 것이었다.

제 옷을 내려다본 데이블린은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일어났다. 폼은 안 나게 되었으나 계획은 그다지 바뀐 게 없다.

마넷을 찾는 이들의 꽁지에 불이 붙은 걸 보니 후작이나 아그네스 왕녀의 분노가 상당한 듯했다.

'그러면 된 거지.'

이참에 아예 래지스티나 후작까지 아그네스의 눈 밖에 난다면 더욱 환영이다. 데이블린은 절뚝이는 발목으로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발목을 접질린 건 아니지만 발이 약간 얼얼했다. 그런데 제 갈 길이나 갈 줄 알았던 세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다리가 그런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어딜 가려는 건지 몰라도 숨겨줄 테니까 따라와."

데이블린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보던 세실은 속으로 생각했다.

'보낼까, 말까.'

하녀냐고 물으니 무시하기나 하고, 도둑이라기엔 너무 허술하다. 하지만 그녀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절뚝거리는 꼴을 봐주고 있기 힘들었다.

세실은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단 그녀를 안아 올렸다.

"꺅! 왜 이래?"

"나랑 가기 싫다며. 그럼 내가 따라가려고."

"지금 장난해?"

"그런 발로 돌아다녔다간 바로 해고될걸. 아까보니 후작 얼굴에 욕심이 그득하던데, 그런 인간은 일하다 다쳤다 해도 봐주지도 않아. 나같이 너그러운 고용주라면 모를까."

세실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그녀에게 말했다.

'어쩌라고?'

어이없어하는 데이블린을 보고도 개의치 않은 듯 그가 은근하게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야밤에 이 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취직처를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아, 귀족 나으리 당신 저택? 그런데 어떡하지. 나 같은 좀도둑을 거뒀다간 가진 거 다 털리고 말걸."

빈정거림에도 세실은 싱긋 웃었다.

"도둑질해 준다면 합법적으로 신문할 시간을 갖게 되겠지. 나랑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었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데이블린이 알고 있는 작중 세실은 아그네스의 왕위 쟁탈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모두 잔인하게 도살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다.

왕세자 디트리히와 친척 관계로 앞에서는 사이가 좋은 듯 지내다 왕세자의 유모를 산채로 태워 죽였다는 대목에서 이 남자의 나쁜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예상과 달랐다.

'정말로 세실 키시어드가 맞는 건가?'

데이블린은 이러다 졸지에 세실과 숨어있게 될 것 같아 그를 멈춰 세우고 물었다.

"근데 당신, 이름이 뭐야?"

"난 세실이야."

하녀 내지는 좀도둑으로 착각하고 있는 여자가 건방지게 이름을 물어도 그는 선선히 본명을 털어놨다. 반 토막으로 잘린 말투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키시어드 대공이 맞는데... 대체 뭐야, 이 자식?'

세실은 데이블린의 대답을 기다리듯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너는?"

"뭐가."

"가련한 신사의 이름을 받아 갔잖아. 그럼 응당 네 이름도 알려줘야 수지가 맞지."

데이블린의 표정이 썩어들어갔다. 키시어드 대공에게 쌍둥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놈은 분명 아그네스의 후원인이 맞다.

한데 자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졸졸 따라붙고 이름을 알려달라 조르는 게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었다.

대충 가명을 대고 헤어지려다, 순간 떠오르는 생각에 멈칫했다.

'데이…가 아니라, 그게 당신 이름이었군.'

원작의 '데이'는 왕세자 디트리히를 만날 때 가명을 썼다. 그 무렵 '데이'는 래지스티나 후작가를 완전히 장악한 마넷 모녀에 의해 가문에서 쫓겨나다시피 출가해 살던 중이었다.

그러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기 디트리히와 첫 만남을 갖는다. 하지만 그녀는 부정할 수 없는 래지스티나 후작의 핏줄이었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 디트리히가 아그네스 왕녀와 대립하는 왕세자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일을 돌이키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마넷은 왜 하필 왕세자가 아닌 왕녀의 편에 섰을까. 내게 무엇하나 베푼 건 없는 가문은 어째서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가.

디트리히와 첫 만남에서 가명을 댔을 땐 단순히 낯선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주기 싫어서 일 뿐이었지만, 나중에 가선 성과 본명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그마저도 가문의 필요에 의해 왕세자가 있는 연회장에 강제로 끌려갔을 때 들통나고 말았지만.

'날 속인 거였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나?'

'아니에요!'

데이블린은 원작을 떠올리자 기분이 나빠졌다. 마치 그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는 것 같았다. 상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데이'의 몸속에 들어와 그대로 가명을 대려는 자신이 원작의 줄거리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아 거부감부터 치솟았다.

'책 속이든 뭐든 난 이제 데이블린이야. 데이블린이 돼서, 새로운 삶을 내 마음대로 개척할 거야.'

어차피 이 파티가 끝나면 대공과 마주칠 일 따윈 없을 거다. 그녀는 솔직하게 본명을 꺼냈다.

"데이블린."

그러자 세실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녀가 가지기엔 너무 고풍스러운 이름인데."

"당신 이름도 썩 어울리는 건 아냐. 그 피부색. 알디엔 대륙에선 다른 식으로 이름을 짓잖아."

"하녀께서 타 대륙 작명법도 아시고."

원작에서 나왔던 말을 읊었을 뿐인데 그가 기묘한 미소를 짓는 걸 본 데이블린은 아차해서 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그때 멀리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락에 갇혀있던 마넷이 풀려나 엉엉 우는소리가 후원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저택 이 층을 곁눈질한 데이블린이 미간을 찡그렸다. 그녀는 자신을 안고 있던 세실의 멱살을 잡고 확 끌어당겨 속삭였다. 갑자기 잡아당겨 놀란 듯 크게 떠진 초록색 눈동자가 아주 가까이서 보였다. 악당 주제에 몹시 맑은 색깔이었다.

"왕녀께서 당신을 찾을 시간이네. 도와준 건 고맙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뭐?"

그 또한 데이블린을 관찰하고 있었던지 한 박자 늦게 헛웃음을 터뜨렸다.

"왕녀가 왜 나를 찾지?"

"당신 키시어드 대공이잖아."

그러자 세실이 황당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그걸 아는데 말이 이렇게 짧아?"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관심 꺼. 그럼 되겠네."

"아, 그건 싫은데 어쩌지."

'좋을 대로 하라지.'

데이블린은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후원의 풀숲을 벗어난 세실이 저택 정문을 향하자 데이블린이 그의 등을 탁탁 때렸다.

"어딜 가는 거야? 내려줘."

"너 도망가야 하잖아."

"아니거든?"

그녀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멀리서 데이블린을 찾는 하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둘째 아가씨!"

"아가씨?"

허울뿐인 아가씨 호칭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세실은 놀라서 얼빠진 얼굴로 데이블린을 바라봤다.

그런 그를 비웃어준 데이블린은 세실을 밀치고서 똑바로 섰다. 하녀는 곁에 선 키시어드 대공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희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영주님과 큰 아가씨가 아가씨를 찾고 계십니다. 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날 찾으신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은 아가씨 성질 받아줄 여력이 없으니 얌전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모시는 아가씨에게 하는 언사치곤 상당히 무례한 감이 있는 말투를 들은 세실의 한쪽 눈썹이 슬쩍 치켜올라갔다. 데이블린은 또 그가 끼어들기 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금 갈게."

그녀는 고분고분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세실을 향해 고개를 돌린 뒤 입모양으로 말했다.

'방해되니까 꺼져.'

아까 세실이 데이블린을 감싸주기 위해 하인들에게 지껄였던 말이었다.

"하."

기막혀하는 세실을 뒤로하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손님들이 떠나간 휑뎅그렁한 홀 안에 울고있는 마넷과 화난 후작이 보였다. 그의 옆에 선 이졸데의 비웃음이 거슬렸다. 후작은 데이블린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호통쳤다.

"데이블린 래지스티나!"

"부르셨어요, 아버지."

"오늘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제가요?"

데이블린은 무슨 말이냐는듯 순진한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되물었다.

"전 오늘 최대한 얌전히 있었는데요. 마넷의 생일이잖아요."

"오늘은 왕녀님이 오시는 날이었다. 선대에 끊어진 왕가와의 연을 다시 이을 절호의 기회를 마넷이 나타나지 않아서 완전히 망친거야!"

"저런. 그러셨구나."

다행히 왕녀가 돌아갔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구출된 마넷 때문에 일이 틀어진 건 아닐까 골치가 아프던 차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다.

방금까지만 해도 세실 키시어드가 정문에 우두커니 서 있었으니 그리 멀리가진 않았겠지만 아그네스가 화났다는 건 큰 소득이었다.

주제도 모르고 상류사회에 끼려는 천출을 무안주려고 온 자리에서 자신이 되레 바람 맞았으니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맺고 끊는 데 가차없는 아그네스의 성격 상 마넷과 인연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세실과 마주쳐서 더러웠던 기분이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 하는듯 태평한 데이블린을 보고 후작이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붉혔다.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느냐?"

"마넷이 나타나지 않아서 엉망이 된 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마!"

데이블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째지는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마넷은 울음을 그치고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데이블린을 노려봤다.

"저 계집애가 수작을 부린 게 틀림 없어요! 제가 아그네스 왕녀님을 뵙는 게 샘나니까 가둬놓은 게 틀림 없다고요!"

"갇혔다니? 무슨 일 있었니?"

"네가 내 드레스를 훔치는 바람에 내가 그 더러운 다락방에 한참 동안 갇혀 있었거든?"

"드레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락방 문이 부실하긴 하지. 전에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나도 거기 나흘이나 갇혀있잖니. 이참에 아예 갈아 끼워야겠다. 그치?"

문이 고장났다는 말은 데이블린이 되고나서 처음 들은 말이었다. 눈을 뜨자 자신은 다락에 갇혀 있었고 며칠이 지나 겨우 빠져나오던 날 마넷이 그런 헛소리를 했다. 그러게 왜 문이 고장난 다락방에 들어갔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타박을 들었지만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대거리 할 수도 없었다. 한데 마넷은 자신이 했던 말은 깨끗이 잊은 듯 별 일도 아닌 걸로 시끄럽게 굴었다.

"너야! 너라고! 내가 다락에 들어간 사이 네가 날 가둔거야!"

부아가 치미는지 어린 아이 억지 부리듯 소리치는 마넷을 보고 이졸데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잇속 잘 챙기는 영리한 딸이지 악 쓰는 아기가 아니었다.

데이블린은 눈썹 끝을 축 늘어뜨리며 시무룩한 표정을 가장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런 걸로 할게."

"아버님! 어머니! 쟤 표정 바뀌는 거 보셨어요? 두 분 안 계실 때 쟤가 저랬다니까요!"

흥분해서 소리치는 마넷의 말에 이 상황을 이해시킬 설득력같은 건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마넷. 너무 흥분한 것 같구나. 아버님 보시기 좋지 않으니 말을 차분하게 하거라."

"제 생일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어머니?"

"그러면?"

흥분한 마넷이 이졸데에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으나 이졸데는 딸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가 놀 때 조심하라고 했지. 마넷 래지스티나."

"..."

웃음기 하나 없이 내려다보는 어머니의 표정을 확인한 마넷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눈물로 젖은 뺨을 팔로 쓱 닦아내더니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다. 모녀가 싸우든 말든 방에 들어가 쉬고 싶어진 데이블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무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랄게, 마넷."

"어딜 가? 네가 망친 파티를 어쩔건데?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러자 유순하게 풀어져있던 데이블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늘게 접으며 마넷을 향해 물었다.

"내가 왜 빌어야 하는데?"

'데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 애라면 자기가 뒤집어 써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 무릎 한 번 꿇는 것 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잠깐 자존심을 굽혀 져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애였으니까. 하지만 '데이'가 무릎 꿇을 때 깎여나간 건 자존심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었다.

마넷의 골탕이나 이졸데의 학대에 의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사과하고 방에 갇힐 때마다 '데이'의 성격은 점점 어둡고 의기소침하게 변해갔고 변한 성격은 그녀의 운명마저 바꾸었다. 계속해서 한 걸음 물러서던 '데이'는 결국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허공을 밟아버리고 말았으니까.

그간 쌓인 가짜 잘못들은 자격 없는 후계자라는 칼날이 되어 마넷에게 가문을 빼앗기는 데 영향을 끼쳤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세실 키시어드와의 만남같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아는 일까지 당해주고 있긴 싫었다.

"난 지금까지 후원에 있었어."

"그걸 누가 믿어주는데?"

"내가 손님과 같이 있는 걸 본 하인이 있으니 그 자를 찾아내면 되지."

"손님? 어느 레이디가 너 따위를 상대해준다는 거야? 아니면, 설마 너 남자랑 같이 있었니?"

"..."

데이블린은 입을 다문 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남자라면 남자긴 하지. 마넷이 지레짐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리 집에서 내놓은 딸이라지만 넌 아직 래지스티나야. 그런데 더럽게도 왕녀님이 오시는 내 생일 파티에서 남자랑 붙어 먹어? 너희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잖아?"

"말이 심하네."

"다 맞는 말인데 뭐가 어때서? 너 얼른 나한테 사과해. 내 드레스 훔친 거, 다락방 앞에 머리띠 놔둬서 나 유인한 거, 다락방 문 잠가서 못 나가게 한 거 다 사과해!"

"마넷."

"왕녀님이 돌아가신 것도 다 네가 책임져!"

씩씩거리는 그녀를 향해 데이블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 다 했니?"

"왜? 할 말 있다 이거야?"

"내가 드레스를 훔쳤다는 증거 있어?"

"파티 직전에 드레스가 사라졌는데 이 집에 그럴 짓을 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증거는 없다는 이야기네."

흥분해서 윽박지르는 마넷의 막을 가로막고 데이블린이 쐐기를 박았다. 마넷이 작정하고 괴롭히거나 뒤집어 씌우는 일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닐 뿐더러 후작부부도 신경쓰지 않았지만 왕녀 아그네스가 바람 맞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화가 난 건 마넷 뿐만 아니라 후작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하냐고!"

소리치는 마넷의 뒤에서 후작이 입을 열었다.

"중요하지."

"아, 아버님."

"정말 데이블린이 훔쳐간 게 맞느냐?"

"틀림 없어요. 쟤가 어제 제 방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걸 봤다는 하녀도 있어요."

"내가 내 집 돌아다니는 걸 네 방 앞 기웃거린다고 표현하다니, 할 말이 없구나. 그 하녀부터 매질 해야겠다."

"말 돌리지 마!"

데이블린은 보란듯이 한숨을 내쉰 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꺼냈다.

"그래서. 내가 훔쳤다는 네 드레스가 어디 있는데?"

"뭐?"

"드레스 어디 있냐고."

"당연히 네가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네 드레스를 훔쳐서 다락에 숨겼고 그걸 찾으러 간 너를 가뒀다? 그거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어?"

"물론이야!"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그녀를 보던 데이블린이 문득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힐끗 시선을 돌렸다. 그녀를 따라 모두의 시선이 홀 문간에 다다르자 문 옆에 숨어서 눈치 보던 하녀 하나가 손에 옷감 하나를 쥔 채 쭈뼛쭈뼛 걸어나왔다.

"아, 아가씨. 지금 말씀하신 드레스 말인데요..."

"뭐야?"

"이거 맞죠?"

하녀가 품에 안고 있던 드레스를 펼쳐보였다. 조금 구겨졌지만 어깨가 강조되는 스타일의 분홍색 칵테일 드레스였다. 마넷이 파티 전날까지 고심 끝에 고른 그놈의 드레스가 하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 이게 왜 너한테 있어?"

심지어 드레스를 가져온 하녀는 마넷의 몸단장을 전담하는 전속 하녀였다. 마넷의 곁에서 모신다는 이유로 다른 하녀들보다 유독 콧대 높던 예전 답지 않게 기죽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지 빠른 어조로 말했다.

"아가씨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거봐! 아버님, 어머니! 들으셨죠?"

마넷이 신나서 외친 그 순간, 하녀가 고개를 내저었다.

"작은 아가씨가 아니라 큰 아가씨 방에서 나온 겁니다."

"뭐?"

믿고싶지 않다는 듯 경악하던 마넷은 정신을 차리고 하녀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이게 저택에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찾아내서 제게 주셨어요."

데이블린은 자신과 마넷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던 험프리의 표정을 떠올렸다.

'집사가?'

그가 발견했다는 것보다 중간에 말을 바꾸지 않고 사실대로 전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마넷의 하녀가 직접 건네게끔 했다는 점이 의외였다.

"이게 내 방에서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애당초 다 네 착각 아니야? 멀쩡히 방에 있는 드레스가 없다고 다락까지 올라가서 생 난리를 피운 거 아니냐고."

"뭐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해 보여?"

미안한 말이지만 똑똑해 보이진 않았다. 데이블린이 대꾸하지 않자 마넷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다들 웃기지 마. 나 말고도 다른 하녀들이 방 안을 쥐잡듯이 뒤져도 안 나오던 게 이제 나왔다고?"

"그래, 네 말대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자. 그게 왜 하필 나야? 네가 벌인 자작극일 수도 있잖아? 온 집안이 알다시피 넌 나한테 골탕 먹이고 싶어서 환장한 애잖아."

"헛소리 하지 마!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에, 그것도 왕녀님이 오시는 파티에서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네가 언제는 이유가 있어서 나를 괴롭혔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자 홀 안이 조용해졌다. 마넷은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치솟아 죽으려고 했고, 이졸데는 표정이 굳은 채로 데이블린을 쏘아보고 있었다. 후작의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미간을 꾹 누른 후작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너희 자매끼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섭하지 않아 왔다. 그건 사춘기 애들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버님! 전 아니에요!"

마넷이 그의 말을 끊고 끼어들자 후작이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내 위신과 가문의 이름까지 걸고 하는 장난이라면 좌시할 생각이 없다, 마넷 래지스티나."

"정말 억울해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설사 실수로 잃어버렸다 되찾은거라 할지라도 결국 파티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 너다. 네게 책임이 있는 거야."

후작이 마넷의 부주의를 지적하자 이졸데가 반박하려고 나섰다.

"여보. 이 일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마넷이 오늘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시잖아요."

"당신, 요즘 너무 주제넘는군."

"..."

후작은 기분이 나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하녀의 손에서 마넷의 드레스를 빼앗아 바닥에 거세게 내팽개쳤다. 그리고 드레스를 발로 무참히 짓밟았다. 그리도 아끼던 분홍색 드레스가 밟히는 걸 본 마넷은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엄한 아버지에게 항변은 커녕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우는 마넷을 본 이졸데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데이블린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따귀를 날렸다.

짝!

텅 빈 넓은 홀에서 살갗이 마찰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데이블린은 고개가 돌아간 그대로 황당한 나머지 헛웃음 지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주님은 다르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난 네가 범인이라고 확신해."

"죄송하지만, 어머니. 벤크번드에선 영주님의 뜻이 법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영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 판단을 거스르는 건가요?"

"어린 게 못된 것만 배워서는! 그 건방진 눈빛은 뭐야?"

이졸데가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올렸을 때였다.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에 미안한데."

음험하고 낮은 목소리가 이졸데의 손을 멈추게 했다.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홀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 기대 선 키 큰 남자의 삐뚜름한 입술 끝이 기분 나쁘게 올라가있었다. 어두운 구릿빛 피부 탓인지 유독 밝게 빛나는 초록색 눈동자가 싸늘한 빛을 띤 채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내가 그쪽 아가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난데없이 끼어든 이국적인 외모의 불청객에게 이졸데가 사납게 외쳤다.

"누구야?"

"세실...?"

데이블린이 멍하게 중얼거리자 세실이 반갑게 대꾸했다.

"거봐, 저쪽도 나를 알잖아."

세실은 뚜벅뚜벅 다가와 뺨을 때리기 위해 치켜들고 있는 이졸데의 손을 손등으로 가볍게 쳐내더니 데이블린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싱글싱글 웃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 집 아가씨에게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귀한 따님인데 말이야."

"당장 병사를 불러서 이 자를...!"

"대공 각하!"

세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려던 이졸데는 넙죽 허리를 숙이는 후작을 보고 당황했다. 데이블린도 세실이 키시어드 대공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후작이 대놓고 허리를 굽힐 줄은 몰라서 눈이 조금 커졌다.

"이거 반갑습니다. 참석하셨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길이 엇갈렸는지 뵙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환영해주시니 저도 참 기쁘네요."

그는 삐뚤게 웃는 얼굴로 고개 숙인 후작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악수하자고 내미는 손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손님들은 어디 갔지? 난 분명 누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세실이 말을 하다말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데이블린을 바라보자 그녀는 짜증난단 얼굴로 어깨에 걸쳐진 세실의 팔을 치웠다.

"내 생일 아니야."

"오, 그럼 첫째 아가씨 생일이었나?"

그렇게 말하며 울고 있는 마넷을 본 세실이 코웃음 쳤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울면 안되지. 좋은 날 자매가 싸워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을 하던 그는 이졸데를 차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내려다봤다.

"손찌검은 보기 안 좋네요. 내가 이 아가씨한테 볼 일이 있어서 따라왔는데, 갑자기 때리길래 놀랐잖아."

"대공...?"

"당신 인사 안 드리고 뭐해? 폐하의 외조카 되시는 키시어드 대공 각하라고!"

후작이 화를 내자 이졸데가 뒤늦게 자세를 취하고 인사를 올렸다.

"처, 처음 뵙겠습니다. 래지스티나 후작의 아내 이졸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딸들 싸움은 내버려두고 반가운 얼굴끼리 이렇게 인사하면 좀 좋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이 아가씨가 뭘 훔쳤다는 것 같던데...,"

세실은 말끝을 흐리며 후작을 흘겨봤다.

"데이는 아까부터 쭉 나랑 같이 있었거든."

"그, 그치만 분명 데이블린이..."

마넷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후작의 벼락같은 눈빛이 마넷에게 꽂혔다. 그 호된 눈빛을 받은 마넷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웃자니까? 왜 노려보고 난리야?"

세실의 말투에 날이 서기 시작하자 후작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마넷의 울음보는 터진 뒤였다. 드레스를 잃어버려 생일 파티가 엉망이 된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게 존경하는 아그네스 왕녀가 참석하는 파티였으니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아버지가 자신을 탓하며 노려보기까지하자 감정이 북받친 마넷은 대공의 앞이고 뭐고 앞뒤 잴 것 없이 눈물을 흘렸다.

"흐어엉... 드레스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고요. 왕녀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해... 무서워 죽겠는데 아버님도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세요..."

목 놓아 우는 마넷을 보고 눈이 동그래진 세실은 그녀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한 마디를 툭 던졌다.

"왕녀님? 아그네스 말하나?"

"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각하! 마넷 래지스티나,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알겠다. 네가 아그네스를 바람 맞힌 거였구나."

세실의 시선이 마넷을 스쳐 데이블린에게로 향했다. 갑자기 자신을 보는 그를 향해 데이블린이 눈썹을 찌푸려보이자 세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히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걘 아무 생각도 없을 걸? 애가 좀 단순하거든."

"흐엉... 네?"

마넷이 훌쩍이며 묻자 세실이 어깨를 으쓱했다.

"뒤끝이 없다고 해야하나. 잘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정 억울하면 내가 대신 말해 줄 수도 있고."

그러자 내내 차분하게 있던 데이블린이 놀라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겨우 마넷과 왕녀를 갈라놓았는데 세실 키시어드가 둘을 이어주겠다고?

'이 새끼 대체 무슨 속셈이야?'

세실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든 데이블린과 눈을 마주쳤다.

"이 집 아가씨를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니까 말이야."

"정말이세요? 정말, 정말로요?"

마넷이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재차 묻자 세실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그네스가 이 집에 다시 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 들었어? 왕녀님이 다시 나를 보러 오신대!"

기쁜 나머지 어린아이같은 말투로 방방 뛰는 마넷을 찌푸린 얼굴로 보던 이졸데는 한편으로는 안심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본 데이블린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내가 어떻게 꾸며놓은 판인데...!'

눈 앞에 후작 부부가 있는 것도 잊고 세실의 멱살이라도 잡으려던 찰나였다.

"각하."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소리 없이 나타난 한 남자가 세실에게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벌써?"

"왕녀님께서 각하를 찾고 계십니다."

"또 뭐 때문이야?"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돌아가려는지 발걸음을 돌렸다.

"그럼 래지스티나 후작. 제가 다음에 연락을 드리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각하!"

데이블린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귀찮을 만큼 치근덕거리던 그는 사라질 때만큼은 데이블린에게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세실이 사라지자 후작은 눈에 띄게 표정이 펴져서는 마넷을 향해 말했다.

"오늘 네가 사라진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공 각하 덕에 넘어간 줄 알아라."

"네 아버님..."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마넷이 고개를 숙인 채 웅얼거렸다. 후작은 마넷이 뭐라고 대꾸하든 관심조차 없었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이졸데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졸데는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미약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여보, 아이가 많이 놀란 모양인데 오늘은 조금 다정히..."

"그 입 다물지 못해?"

"네...?"

놀라서 눈을 크게 뜬 이졸데를 향해 후작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역정을 냈다.

"대공이 보는 앞에서 감히 내 딸을 때려? 대공이 날 뭐라고 생각했겠어! 이대로 중앙 사교계에 근본 없는 졸부 집안이라고 소문 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군!"

"아, 아니 전 그냥... 데이블린이 너무 기고만장한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이 없으니 그저 그런 상인의 집안에서 얼굴 하나로 먹고 살았던 거겠지! 당신 수준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나까지 당신 수준으로 끌어 내릴 작정인가?"

"..."

후작의 폭언을 듣고 이졸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한 마디 말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군 상태였다. 지금 그녀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옷으로도 가리지 못할 만큼 초라한 꼴이었다.

"모자란 핏줄을 거둬줬더니 은혜를 몰라보고 집안을 망치려 드는군, 그래!"

이졸데를 향해 소리친 후작은 홀 밖으로 나가버리려다가 발에 걸리는 마넷의 드레스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찬 뒤 걸어 나갔다. 그가 나가자 남겨진 이졸데와 마넷 모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졸데가 먼저 다가가 마넷을 안아주자 마넷이 이졸데의 품에 안겨 울었다.

온 세상 불행은 다 짊어졌다는 듯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속이 뒤틀렸다. '데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오늘 일은 새 발의 피 수준이었다. 후작의 호통 좀 들었기로서니 불쌍한 척 하는 꼴이란. 데이블린은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간다는 말도 없이 몸을 돌렸다. 홀을 나서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마침 위에서 내려오던 집사 험프리와 눈이 마주쳤다.

평소 같았으면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을 그가 웬일인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괜찮지 않으면?"

성의없이 대꾸한 뒤 바로 지나치려던 데이블린은 문득 드는 생각에 잠시 멈춰 서서 집사를 호명했다.

"험프리."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왜 마넷의 방에 드레스를 가져다 놨지?"

이 저택에 온통 적 뿐인 데이블린에게 드레스를 빼돌려 줄 만한 조력자 따윈 없었다. 도중에 세실이 난입해 뺨을 맞던 자신을 막아준 것은 의외였지만, 그것보다 더 놀랐던 건 험프리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자신의 계획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하인들의 탈의실에 몰래 숨겨놓았던 마넷의 드레스를 발견해놓고도 마넷의 방에서 찾은 것처럼 말한 건 누가봐도 데이블린의 계획을 눈치채고 도운 것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드레스가 다른 곳에 있었나요?"

그 능청스러운 대꾸에 데이블린은 할 말이 없어졌다.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아니, 됐어."

그가 말 할 생각이 없다면 구태여 캐묻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데이블린은 더 물어보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다. 끊어질 뻔한 아그네스와 마넷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지도 모르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넷의 생일이 엉망으로 끝나고 한 달 뒤, 왕녀 아그네스는 벤크번드에 완벽히 적응했다. 후작의 평민 의붓딸에게 바람 맞았던 것이 언제였냐는 양 온갖 유명 인사의 파티를 종횡무진 누비며 왕위 계승 후보자의 위세를 마음껏 펼치는 중이었다.

그리고 밤이 완전히 무르익은 한여름의 어느 날, 왕녀의 주최하에 열리는 야회 초대장이 사교계를 돌기 시작했다. 왕녀의 야회 초대장은 정계와 재계, 예술과 문무를 겸비한 각 분야의 힘 있는 인사에게 전해졌으므로 세번째 야회에 이르러서는 왕녀의 초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가문의 세력을 가늠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가문의 규모나 역사로 봤을 때 래지스티나 후작가도 어디 가서 밀리는 집안은 아니었으나, 마넷이 왕녀를 물먹인 적 있었던 만큼 몇 번의 야회가 되풀이 될 동안 래지스티나 후작가에 초대장이 전해지는 일은 없었다. 바로 어제까지는 말이다.

"베키, 어때? 나 어때?"

마넷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드레스를 입은 채 한 바퀴 핑그르르 돌았다. 드레스를 전해준 전담 하녀가 갈아치워지고 새로이 마넷의 하녀가 된 베키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갈채를 보냈다.

"최고예요! 잘 어울리세요, 아가씨!"

"정말? 나 잘 어울려?"

마넷이 행복한듯 미소를 피워내던 그때였다.

"난쟁이 똥자루같은 게 누더기 좀 차려입는다고 왕녀께서 잘도 돌아봐주시겠군."

"뭐야?"

난데없이 쏟아진 폭언에 발끈한 마넷이 고개를 쳐들고 2층을 올려다봤다.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댄 데이블린이 턱을 괸 채 마넷을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기껏 행차해주신 왕녀를 대놓고 물먹인 너에게 그분이 왜 관심 가지시겠어?"

"하! 여기서 누더기를 입은 게 누구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하. 다 떨어진 하녀복이나 주워입는 우리집 거지 새끼 말하나 보구나?"

"면상에 덕지덕지 붙은 심술보나 어떻게 하고 지껄여.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런 성격으론 왕녀께서 네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실테니까."

생일 파티 이후, 마넷은 사교계 숙녀들에게 철저히 배제되었다. 왕녀가 벤크번드에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세를 넓힐수록 마넷의 입지는 줄어갔다.

그 누구도 구태여 마넷과 어울리기 위해 왕녀의 눈밖에 나고 싶어하는 이는 없었다. 모든 모임과 행사에서 제외될 때마다 마넷은 방에 틀어박혀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의 트집과 골탕에 바뀐 고용인만 벌써 몇인지, 데이블린은 전처럼 그녀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렇듯 지나칠 때마다 살살 신경을 긁곤 했다.

"뭐, 네가 이렇게 기 펴고 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씩씩거리던 게 언제냐는 듯 마넷이 가슴을 쭉 펴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뭐?"

"내가 어떻게 되실 몸인데 감히 내 앞에서 그딴 말을 지껄여?"

그러자 데이블린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었다.

"네가 뭔데?"

"아, 너한테만 특별히 말해줄까? 난 말야, 머지않아 대공비가 될 거거든?"

"대공... 뭐라고?"

이게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더니 미쳤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마넷은 꿈에 부풀어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

"그날 아버지의 꾸짖음에서 나를 구해주신 키시어드 대공 각하 말이야. 내게 마음이 있는 게 틀림없어."

'키시어드 대공'을 언급할 때 마넷의 얼굴이 발그스름해졌다. 그녀는 마치 세실이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몸을 비비 꼬았다. 데이블린은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실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는다고?'

착각도 유분수지 이젠 비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그네스 왕녀님의 초대장을 직접 보내주실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분은 '이 집 아가씨를 왕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게 너다?"

"그럼 너겠니? 당연히 나지!"

다른 해석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듯 마넷은 자신감에 차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비춰보았다.

"그런데 명색이 미래의 대공비가 왕녀 전하를 뵙는 자리인데 이 옷은 너무 수수한 것 같아."

"수수하다니요? 저희 가족 2년 치 생활비에 육박하는 드레스인데요!"

베키가 놀라서 기함하자 마넷이 그녀를 향해 샐쭉한 눈길을 보냈다.

"내가 너랑 수준이 같아? 네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 내 위신이 곧 키시어드 대공의 위신이란 말이야."

"어련히 그렇겠다."

멍청한 것도 어지간해야 귀여운 수준이지,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진 데이블린은 자리를 뜨며 한 마디 덧붙였다.

"착각하지 마. 키시어드 대공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진심이었던 적 없어."

그것만큼은 데이블린이 확신할 수 있었다. '데이'가 직접 온 몸 부딪쳐 겪어본 원작을 이미 읽었으니까. 데이블린은 헛된 꿈에 빠져있는 마넷을 애잔한 눈길로 일별한 뒤 제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 좁다란 바닥의 한 면적이나 차지하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

데이블린은 말 없이 선물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곱게 접힌 이브닝 드레스와 반짝이는 구두가 다소곳이 들어가 있었다. 마넷이 입고 있는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세실 키시어드가 래지스티나 후작저로 보낸 물건이었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세실..."

데이블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흘러내린 은사같은 머리카락을 넘기며 벽에 붙은 거울 속 자신의 붉은 눈동자와 눈을 마주쳤다.

"이런 게 나랑 어울릴 리가 없잖아."

올 여름 벤크번드의 상징과도 같이 자리잡은 아그네스 왕녀의 야회는 나날이 붐볐다. 그녀가 파티를 여는 사저는 마치 수도의 왕성을 옮겨온 듯 화려하게 꾸며져있었고 값비싼 생화와 보석, 도금을 아끼지 않은 장식들로 눈 둘 곳이 없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게 키시어드 대공의 재력 아니겠어?"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마넷은 세실의 재화가 자신의 것이라는 양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뒤이어 마차에서 내린 데이블린은 대꾸없이 무감한 얼굴로 저택 안을 훑었다.

"왕녀님께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과시나 다름없지! 아무리 벤크번드에서 자숙한다 한들, 아그네스 왕녀님은 어엿한 왕위 계승자 중 하나니

까."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네 주제를 알라는 뜻이야, 데이블린 래지스티나. 대공이 어떤 착각을 하신건진 몰라도 너까지 초대됐다고 네가 나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난 대공비가 되실 몸이라서 말이야."

마넷은 데이블린의 근처에도 서 있기 싫다는 듯 머리카락을 귀 뒤에 꽂아 넘기며 산뜻한 얼굴로 웃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선 구질구질하게 아는 척 하지 마?"

데이블린이 무어라 쏘아붙이기도 전에 마넷은 신나서 베키와 사라져버렸다. 홀로 남은 데이블린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높은 구두와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새까만 이브닝 드레스 끝단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내 정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그네스가 저 멍청이와 쉽게 만나주진 않겠지만, 지난번 세실이 갑자기 끼어들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무슨 생각인지 세실이 래지스티나 후작가로 보낸 초대장과 드레스는 두 개였다. 이렇듯 대공이 직접 데이블린까지 함께 초대한 이상, 그녀를 못마땅해하는 후작이나 이졸데라도 야회에 가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마넷은 처음에 데이블린과 같이 초대되었다는 걸 알고 분통을 터뜨리다가 이내 데뷔탕트도 치르지 못한 반편이 따위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거라며 기세등등해졌다.

어차피 데이블린의 목적은 그런 것 따위가 아니었다. 아그네스가 마넷을 상대해주는지, 그래서 마넷이 원작대로 아그네스의 사람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입술을 사리물며 마넷이 사라진 홀 안으로 들어서려던 찰나였다. 누군가가 습관처럼 데이블린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여상하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해?"

갑자기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에 흠칫 놀란 데이블린은 고개를 들었다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까만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긴 세실 키시어드가 같이 온 일행인 양 친한 척 바짝 붙어 있었다.

"당신..."

"우리가 벌써 그렇게 부를 사이였나? 흠, 나쁘지는 않은데."

"뭐?"

데이블린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세실이 어깨를 움츠리더니 수줍게 미소지었다.

"남들 앞에서 그러는 건 좀 부끄러워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데이블린이 언성을 높여도 조금도 신경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다만 그녀의 드레스를 힐끔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데이블린이 단박에 인상을 쓰자 그는 실실 웃으며 살짝 흘러내린 어깨끈을 정리해주었다.

"드레스 잘 어울리네."

"..."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검은색 벨벳 이브닝 드레스는 단독으로 봤을 땐 아름다웠다. 하지만 자신이 걸치니 드레스가 주인을 잘못 만나 볼썽사나운 꼴로 전락한 것만 같았다.

세실이 또 뭐라고 유들거릴지 몰라 되도록이면 이 옷을 입고 싶지 않았지만, 마넷의 말마따나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다 낡은 하녀복이 전부였으므로 마넷의 드레스를 훔칠 게 아니라면 이 옷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억지로 입고 나서도 영 탐탁치 않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건만. 보자마자 드레스가 어울린다는 칭찬부터 꺼내는 통에 다시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보낸 목걸이는 왜 안 했어? 그것도 언니가 뺏어갔나?"

"그딴 건 너나 해."

"좋아. 날 위해 선물해 준다면 기꺼이 받아야지."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된 게 한 마디도 지는 법이 없었다.

"왕녀님은 어쩌고 혼자 있는 거야?"

"아그네스? 알아서 잘 있겠지. 그런데 너 저번부터 나만 보면 아그네스한테 가라고 하지 않았나?"

당연한 것 아닌가? 소설 속에서 아그네스는 세실의 가장 훌륭한 체스말이었고, 그녀가 망가지지 않게끔 방해가 되는 '데이'와 디트리히를 없애버리고 싶어했었다.

비록 디트리히에게 '데이'의 복수를 해준다는 동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디트리히가 라이벌로 존재하는 한 언제 어떻게 그녀가 위험해질 지 모르는 일이었다.

"아그네스는 호위기사인 거트루드가 알아서 호위할 거야. 왜 자꾸 날 아그네스랑 엮지 못해서 안달이지?"

"내가?"

"닮진 않았지만 우린 친척이라고. 이젠 왕족의 근친혼도 불법인 시대야."

그렇겠지. 만약 법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세실은 아그네스를 디딤돌 삼아 기어코 왕관을 얻고 말았을 것이다. 데이블린은 그의 기묘하리만치 선명한 초록색 눈동자 뒤에 숨겨진 해묵은 증오와 분노를 짐작했다.

태평한 듯 웃고 있어도 수 틀리면 이 자리의 누구도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흑막 세실 키시어드였다. 데이블린은 그를 경계하는 자신의 기색을 읽히지 않으려 최대한 태연한 낯을 가장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찼는지는 몰라도 뭐든 생각이 연애로 튀니 당신 수준 참 알만 하네."

데이블린이 세실을 한심하다는 흘겨봤다.

"그럼, 당연하지. 내 또래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건 어째서라고 생각하는데?"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데이블린은 홀 안의 붐비는 인파 사이로 먼저 들어가버렸다. 세실은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그녀의 뒤를 쫓았다.

아그네스 왕녀의 사저 안은 마넷이 감탄했던 것처럼 값비싼 광물과 황금을 아낌없이 사용해 꾸며져 있었다. 이 저택의 주인이 바라는 대로 자숙을 위해 내려온 벤크번드 시골에서까지 재력과 권력을 아낌없이 흩뿌릴 수 있다는 과시겠지.

"돈을 써도 이런 데다 낭비하나? 한량없이 돈 자랑하는 졸부같아."

"그런 말은 상처야."

그녀의 한 걸음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던 저택의 주인이 장난스럽게 비틀거리며 미소지었다. 천진난만한 소년같은 미소였다.

"진짜로 졸부 출신이라서 말이야."

"뭐?"

그러고 보니 이 야회의 주최자인 아그네스의 후원자라 함은 자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세실 키시어드를 제외하면 국왕 뿐이었다.

비록 보여주기 식이었다고는 하나, 백작 영식을 고문한 아그네스의 죄를 물어 벤크번드에 자숙하게끔 한 국왕이 이 화려한 파티를 지원하지는 않았을테고. 남은 건 결국 세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는 이야기다.

"당신이 왜 졸부지? 이 나라에 키시어드 대공가 보다 유서깊은 가문이 몇 군데나 있다고?"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 없는 로나드 왕국에서 국왕의 혈족만이 가질 수 있는 키시어드 대공가는 웬만한 개국공신에 버금가는 깊은 전통을 자랑했다. 그 성을 지닌 이들이 소유하는 권력은 단순히 많은 재화와 강한 군권만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조의 선조, 그 선조의 선조때도 키시어드는 단 한 번도 졸부라 낮잡아질 만 한 위치였던 적 없었다.

"우리 가문은 한 번 폐작 됐으니까."

"국왕 폐하께서 복권해주셨으니 당신이 지금 키시어드 대공이라 불릴 수 있는 거잖아."

"그건 그런데, 가솔들의 목이 모조리 날아갔으니 잘나신 전통도 의미가 없지. 지금은 돈만 좀 쥔 쭉정이일 뿐이야."

세실은 말을 하다말고 픽 웃더니 데이블린을 지나쳐 앞질러 갔다.

"세상은 그런 집안을 보고 졸부라고 하더라고."

"장난해?"

데이블린은 황당한 나머지 자리에 서서 그의 뒤통수만 바라봤다.

'키시어드가 그렇게 깎아내려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럼 '데이'가 했던 고생들은 다 뭐였는데?'

키시어드 대공을 등에 업은 아그네스 왕녀는 세상도 집어삼킬 수 있었다. 그래서 힘 없는 후작가의, 그것도 버림받은 영애에 불과한 '데이'는 마넷의 욕심에 의해 가문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뿐인가. 나중에 가선 디트리히와의 관계를 알게 된 아그네스의 계략으로 인해 온갖 수모를 겪어도 그녀의 뒤에 키시어드 대공이 있었기에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불쌍한 척 하기는. 폐작될 만한 짓을 했으니 작위를 뺏긴 거겠지.'

키시어드 대공가는 선대 국왕이자 아그네스의 어머니인 줄리아 2세의 치세때 반역이라는 있을 수 없는 중죄를 지어 작위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련된 혈족이 모조리 처형당했다.

'그 중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게 바로 눈앞의 저 남자, 세실 키시어드.'

줄리아 2세가 병으로 죽고 그녀의 남동생인 현 국왕이 새로이 즉위하면서 키시어드 대공가의 반역 혐의는 재심에 들어가 결국 무죄로 판명났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돌려받았지만, 문제는 이 거대한 가문의 권력을 이어받을 사람이 세실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넘치는 재산과 권력을 수세에 몰린 힘 없는 왕위 계승 후보자 아그네스 왕녀에게 쏟아붓는다. 그건 '데이'의 불행, 그러나 마넷의 행운이었다.

"..."

치밀어 오르는 욕지기에 입술을 짓씹은 데이블린은 더욱 사나운 눈초리로 정면을 노려보며 걸었다. 그녀보다 앞서가던 세실이 어느새 우뚝 걸음을 멈춘 채 설렁설렁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손짓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니 왕녀 아그네스가 있었다. 타오르는 듯한 붉은 머리, 싸늘한 적갈색 눈동자. 작중에서 무뚝뚝하고 가차없다고 묘사되었던 것처럼 딱 정 떨어지게 생긴 얼굴이었다.

아그네스는 무감한 얼굴로 세실과 그의 옆에 선 데이블린을 힐끗 보더니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자 이내 관심을 끊어버렸다. 세실을 보면서 나도 같이 본건가? 표정 변화가 없어서 자신에게까지 시선이 닿은 건지 짐작하기 힘들었다.

그녀가 자신을 봤다는 생각만 해도 주먹 쥔 손에 땀이 차고 입술이 마르는데 세실은 태평한 얼굴로 헛소리나 지껄여댔다.

"쟤가 왕녀야. 너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려고 했지. 쟤가 그렇게 안 생겨서는 귀여운 걸 좋아하거든."

"개 같은 소리 집어치워."

데이블린이 인상 쓰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왕녀를 소개시켜 준다는 것도 소름끼치는데 자신의 뾰족한 눈꼬리를 보고도 어떻게 귀엽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머리통 속이 궁금할 지경이었다.

"왜? 너 귀엽잖아."

"귀엽기는..."

[아하하. 쟤 좀 봐. 물에 빠진 생쥐꼴이잖아. 나름대로 귀엽지 않니?]

[닥쳐, 신예지!]

[개웃겨. 더 짖어봐, 응?]

'우욱.'

어떻게 할 여력도 없이 순식간에 떠오른 장면에 속이 거북해진 데이블린은 입을 틀어막은 채 남몰래 헛구역질했다.

'제길.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 생각이 날 건 뭐야.'

데이블린이 아무 것도 묻지 않은 입가를 손등으로 닦는 사이, 아그네스 왕녀가 서 있는 자리에선 작은 소란이 일었다.

"왕녀님, 저예요! 왕녀님!"

마넷이었다. 아까 데이블린보다 먼저 홀 안으로 들어갔던 마넷은 여태까지 아그네스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건지 가득한 인파 속에서 까치발을 든 채로 아그네스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에나, 저 불쌍한 모습 좀 보라지."

옆에 선 어느 귀부인의 탄식과 마찬가지로 데이블린도 그 꼴을 보니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왔다.

'안 따라 왔어도 상관 없었겠네.'

여차하면 마넷과 아그네스의 만남을 갈라놓을 작정으로 따라왔건만. 아그네스는 누가봐도 대놓고 마넷을 무시하고 있었다. 아그네스가 반응을 해줬으면 몰라도 그녀가 아예 무시로 일관하자 근처를 서성이던 귀족들도 서서히 마넷을 향해 이맛살을 찌푸렸다. 적당히 하고 안 먹히면 조용히 찌그러질 것이지 주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였다.

"제가 마넷, 마넷 래지스티나예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왕녀님. 아는 분이십니까?"

보다 못해 아그네스의 곁에 선 늙은 신사가 왕녀의 의중을 묻자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모른다."

"와, 왕녀님."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듯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마넷을 보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데이블린은 아그네스와 마찬가지로 그녀에게서 관심을 끊기로 했다.

'괜히 왔어. 아그네스가 아무리 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저 멍청이를 두 번 만나줄 리 없었던 건데.'

괜한 불안감으로 여기 오는 바람에 괜히 옛날 생각이 떠올라 속만 메슥거리게 됐다. 데이블린은 입을 가린 채 드링크 바를 찾았다. 마침 작은 은 국자로 떠먹게 되어있는 차가운 펀치가 있었다.

이가 시릴만큼 차가운 술을 마시면 이 더러운 기분도 가실 것 같았다. 데이블린이 은 국자에 손을 뻗는 순간 그녀의 손 위로 큰 손 하나가 아귀를 펼친 채 손등을 덮었다. 세실이었다.

술을 못 마시게 손을 붙잡은 그는 인상 쓴 데이블린을 향해 말을 걸었다.

"처량맞게 혼자 뭐하는 거야? 이런 건 나를 불렀어야지."

"치워. 속이 안 좋아서 한 잔 마셔야겠으니까."

"왜? 아그네스가 네 언니랑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어서?"

"뭐?"

데이블린이 놀라 몸을 홱 돌리자 아그네스는 어느새 자리를 비웠고 마넷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는 사이에서 혼자 훌쩍이고 있었다.

"없잖아."

"아그네스가 신경쓰여? 어째서?"

세실의 반짝이는 녹색 눈동자가 데이블린의 눈 앞에 바싹 다가왔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가까이 접근한 그는 커다란 덩치가 무색하게 일말의 기척조차 없었다.

"내가 대화하다 한 눈 팔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는 장난스러운 투로 말하며 화사하게 눈가를 접었다.

건방진 말마따나 높이 솟은 우뚝한 콧대와 시원하게 트인 눈가, 모양 좋은 입술이 조화를 잘 이룬 외모는 이민자의 특징이라 낮잡아지는 구릿빛 피부조차 가산점으로 작용할 만큼 흠잡을 데 없었으나, 데이블린은 저 주둥아리가 모든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신경쓰는 게 언니야, 아니면 아그네스야?"

마넷, 아그네스, 어쩌면 둘 다. 답은 쉬웠지만 함부로 입 밖에 내긴 어려웠다. 이 호기심 많은 대공은 한 마디를 꺼내면 열 마디, 백 마디를 질문할테니까. 차라리 무시해버리자고 생각한 그녀는 세실이 손을 잡고 있든 말든 펀치를 잔에 퍼서 자리를 옮겼다. 물론 그가 뒤를 졸졸 따라왔으나 데이블린의 알 바는 아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겉보기엔 오붓한 두 남녀의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래지스티나 후작부인.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네? 아, 그냥 제 딸을 좀."

이졸데는 언제 노려보았냐는 듯 미소짓는 얼굴로 돌아와 슈와이저 자작을 향해 상냥하게 대꾸했다. 이 근방의 어중이떠중이 귀족들 중 그나마 봐줄 만한 집안을 가진 남자는 이 자 뿐이었다. 뒤룩뒤룩 살찐 몸에 팔이며 볼에 종기인지 여드름인지 모를 뾰루지가 돋아있어 상대할 때마다 비위가 나빠졌지만 그래도 슈와이저 가문의 규모를 보았을 때 알아두어서 나쁠만 한 자는 아니었다.

"딸애가 요즘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반항기도 늘고 부쩍 사나워져서 걱정이랍니다."

"하하, 그런가요. 래지스티나 후작 영애라면, 열여덟 살이랬던가요? 한창 말괄량이일 나이죠."

슈와이저 자작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얼굴도 모르는 이졸데의 딸을 두둔했다. 그러나 이졸데는 근심어린 얼굴로 고개를 내저었다.

"올해 열여덟 된 딸아이는 음전하고 착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고뭉치는 차녀예요. 저희 데이블린이요."

이졸데의 손가락이 시큰둥한 얼굴로 펀치를 마시는 데이블린에게로 향했다. 데이블린은 그들의 시야에서 넓은 등만 보이는 세실이 귀찮다는 듯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오..."

도자기 같은 흰 피부에 투명한 은사같은 머리카락, 석류를 닮은 맑은 선홍색 눈동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소녀였다. 그녀는 이 파티가 따분하다는 듯 눈을 게슴츠레 뜬 채 계속 말을 거는 키 큰 남자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었다.

슈와이저 자작은 작은 눈을 번쩍 뜨며 데이블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벤크번드에 저런 아가씨가 있었나. 래지스티나 가문 특유의 은발은 진작부터 아름답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녀가 저렇게 보기 드문 미인일 줄 몰랐다.

"하지만 사고뭉치라기엔 따님이 참 아름다우신데요..."

그러자 슈와이저 자작의 말에 담긴 은근한 뜻을 깨달은 이졸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슈와이저 자작이 데이블린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물단지 데이블린을 치워버릴 겸, 가문의 지위도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 아닌가? 이졸데는 만면에 화색을 띠며 자작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데이블린과의 자리를 주선해드릴까요?"

"지금 누가 우유나 갖다 달라했어? 마실 걸 달라고 했잖아!"

"죄, 죄송합니다. 주무실 시간이니 우유가 좋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내 말에 말대꾸 하는 거야?"

"아닙니다!"

"됐어. 들고 꺼져. 다 꺼져버리라고!"

래지스티나 후작저 고용인들은 늦은 밤 기분 좋게 파티에 갔다 돌아온 첫째 아가씨의 기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정도 인생밖에 못 사는거야!"

온 집안이 울리도록 빽빽 소리를 질러도 마넷은 기세등등했다. 후작이 주로 생활하는 서재는 방음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후작은 오늘도 새벽까지 서재에 처박혀 있을 작정인지 마넷의 신경질에도 고개 한 번 내다보지 않았다. 덕분에 고용인들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기만 하고 있을 때였다.

"너희들이 주인 아가씨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꺄악!"

짜증을 있는대로 내던 마넷은 난데없이 머리채를 잡는 거센 손길에 소리 지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잔뜩 화나 있는 피처럼 붉은 선홍색 눈동자였다.

"데, 데이블린. 이 계집애가 또!"

"또 뭐, 너 죽고싶지?"

마넷이 오늘만큼은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데이블린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자 데이블린이 마넷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줬다. 그 바람에 손이 닿지 않게 된 마넷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아프다고 갖은 엄살을 떨었다.

"왜 또, 왜! 왜 이러는데, 또! 이 사이코야! 제발 하루라도 나를 마음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너야말로 하루라도 입 닥치고 살 순 없냐? 네 찢어지는 목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응?"

"그럼 자지 말든가! 아악!"

"어디서 말대답이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발전이 없니? 그러니까 그 정도 인생이나 사는 거 아니야."

방금 마넷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데이블린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그녀가 기막힌다는 듯 코웃음 쳤다.

"그래서. 파티 다녀오신 소감은? 네 거라고 공언하던 키시어드 대공은 만났어? 왕녀님은 뭐라든?"

"네가 뭘 알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누가 보면 나는 파티 안 간 줄 알겠네. 왕녀한테 말 한 마디 못 붙이고 낑낑대던 네 처량한 꼴은 구경 잘 했어."

두 사람이 말씨름을 벌이고 있을 때 마넷의 방문을 똑똑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가씨들?"

집사 험프리였다. 그는 마넷에게 구박받던 하녀들을 모두 바깥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마넷을 향해 물었다.

"오붓이 대화 나누도록 문 닫아 드릴까요?"

"집사! 눈이 없어? 이 계집애 당장 떼어내!"

"좋지. 자매간에 우애를 돈독히 할 시간인 것 같으니 문 똑바로 닫고 나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험프리가 따른 명령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었다. 마넷의 말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사라지자 마넷이 헛숨을 들이켰다.

"돌아와! 안 돌아와?"

"험프리가 그래도 네가 언니라고 위신을 지켜주려는 거잖아. 아니면 문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보는 한가운데서 맞아 볼래?"

"흐어엉... 어엄마..."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자 결국 마넷의 울음보가 터졌다. 입을 크게 벌리고 엉엉 우는 마넷을 한심하게 바라보다 얼굴을 향해 베개를 집어 던졌다.

"입 다물고 울어."

코를 정통으로 맞은 마넷은 서럽게 울며 이졸데를 찾았다.

"엄마느은 왜 안 오는거야아..."

마넷의 울음섞인 불평을 듣고 데이블린은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였다. 이졸데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세실이 보낸 초대장은 두 장이었기에 후작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졸데는 딸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초대장 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파티 중반까지만 해도 마넷의 근처에서 그녀를 돕던 이졸데가 갑자기 슈나이저인가 슈나우저인가 하는 자작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그 바람에 꼼짝없이 데이블린의 먹잇감이 된 마넷은 파티장에서 돌아오는 내내 데이블린의 구박을 받고 집에 와서 좀 기를 펴나 싶더니 다시 얻어맞고 있는 중이었다.

"키시어드 대공은 보이지도 않은데다가 왕녀님은 날 발견 못하셨는데 엄마는 도와주지도 않고..."

아그네스가 보고도 모른 척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우긴 마넷은 뒤늦게 생각났는지 세실까지 찾아댔다.

'세실이 마넷에겐 안 간건가?'

파티 내내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던 세실은 어느 순간 볼 일이 생각났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그래서 마넷을 찾아간 줄 알았더니 아예 파티장을 나가버린 모양이었다.

세실이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는 그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졸데가 사라진 건 의외였다.

가뜩이나 마넷이 알게모르게 데이블린에게 구박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곁을 비웠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다.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가?'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그네스는 마넷을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고 마넷의 말을 들어봤을 때 세실이 그녀에게 가지 않았는데 이졸데와 따로 만났을 것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왕세자 디트리히나 국왕은 수도에 있기에 원작을 떠올려봐도 이졸데가 주요 인물 없이 자신을 골탕 먹일 만 한 일 같은 건 없을 것 같았다.

데이블린은 생각에 빠진 채 마넷의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우는 소리가 이불 안에 갇히자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이불 걷고 시끄럽게 굴면 다시 올거야."

"오든지 말든지!"

바락바락 소리치는 마넷은 그러나 이 이상 대거리하지는 않았다. 저택에 어머니가 없는 이상 데이블린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방에서 나온 데이블린은 2층 창문을 통해 저택으로 오는 숲 길목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졸데의 마차가 올 시간이 훌쩍 지났건만 여태 소식이 없었다.

"저어..."

어둠이 내려깔린 숲길을 보고 있던 데이블린은 누군가 말을 거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하녀 두 사람이 그녀를 향해 우물쭈물거리고 있었다.

"뭐야?"

"방금... 큰 아가씨 화내실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아가씨."

"..."

"제가 전에 화를 냈는데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자 이 하녀가 전에 세실과 처음 만났던 날 호통치며 자신을 찾았던 하녀라는 걸 깨달았다.

"근데 그게 뭐?"

"네?"

"내가 널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준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또 야밤에 이런 소란이 일어나면 너희부터 매질할거니까."

"무, 물론이죠! 큰 아가씨께는 다음 번부터 좀 더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보고하고 난리야."

데이블린은 혀를 쯧 찬 뒤 몸을 돌렸다. 뒤에서 하녀들이 '세상에, 작은 아가씨도 부끄러움을 타나보다.'하는 둥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거기까지 지적하기엔 피곤이 몰려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갔다.

끼이익.

원래 존재하지도 않던 '작은 아가씨의 방'을 만들어내느라 창고로 쓰던 방을 개조한 바람에 문은 기름칠이 덜 되어 여닫을 때마다 거의 귀곡성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조막만 한 창문은 커튼 한 장 달려있지 않았다.

거창하게 꾸민 것 없는 초라한 방이지만 데이블린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온 몸에 힘을 빼고 침대에 몸을 푹 파묻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기 방이 최고였다.

'내일은 입을 만한 멀쩡한 평상복을 내놓으라 해야겠어. 그리고 디트리히와 만나는 게 몇 년 뒤였더라...'

침대에 얼굴을 묻은 채 내일 할 일을 떠올리고 있으니 점점 잠이 쏟아졌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의식이 어둡게 꺼지며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아가씨, 안 일어나세요?"

"음..."

"일어나 보시라고요!"

"누구야...?"

잠에 빠져 있던 데이블린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잠 기운에 비몽사몽한 상태였으므로 상대가 누군지 알아차리기 위해 몸이 한껏 긴장되었다.

"예지... 언니?"

"일어나셨나요?"

손이라도 날아올까 겁에 질려 완전히 눈을 뜨니 조심스럽게 자신을 깨우고 있는 하녀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벽에 붙은 손바닥 만 한 창문을 황급히 바라보니 이제 막 아침 해가 뜬 이른 시간이었다.

'맞아, 난 데이블린이야...'

정신이 들자 하녀들이 입은 하녀복과 방 안의 목재 장식, 허름한 내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신예지는 이런 방에서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른 아침 자신의 방에 찾아와 자는 사람을 깨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도 쿵쿵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멍하게 얼어붙어있는 데이블린을 부드럽게 일으켜 앉힌 하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 개중 가장 강단있어 보이는 하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가씨. 어디 불편하세요?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됐어. 내 방엔 무슨 일로 몰려온 거지?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고 말 한 적 있었던가?"

자연히 말투가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하지만 데이블린의 뾰족한 반응에도 하녀들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기색이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가씨를 얼른 깨워서 내려오라는 마님의 명령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날 깨우라고? 너희 명령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마넷을 깨우라는 뜻이겠지."

"아니에요. 마님께선 둘째 아가씨를 깨워서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치장?"

사실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만큼 꾸미라는 명령이었지만 불같은 데이블린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일부러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하녀들은 서로의 눈을 본 다음 고개를 끄덕이더니 데이블린의 양 팔을 잡아 침대에서 완전히 일으켰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럼 세수부터 시작할게요."

"대체 뭐야?"

하녀들의 능숙한 손길에 세수부터 시작해 목욕까지 마친 데이블린은 하녀들이 사라진 틈을 타 의자에 걸터앉았다. 이졸데의 명령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내고 싶긴 했지만, 일단 목욕이 끝날 때까지는 얌전히 있었다.

목욕을 마치자 머리를 말리고 빗어준 하녀들은 어디서 난 건지 모를 새 옷을 그녀에게 입혔다. 어디서 주워온 듯한 누더기는 아니었다. 그리 화려하진 않았지만 작은 리본이 가슴에 달려 자신이 입기엔 너무 귀여운 느낌의 옷이었다.

일단 주는대로 입고 1층으로 내려가보니 하녀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실에 이졸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곱게 차려입은 차림새로 팔엔 작은 핸드백을 걸치고 양산까지 들고 있었다.

"일어났구나!"

"대체 무슨 일인데 하녀들이 아침부터 수선을 피우는 거죠?"

"얘는, 엄마에게 말투가 그게 뭐니?"

시비거는 건가? 순간 긴장했지만 이졸데는 투정같은 가벼운 타박을 한 뒤 미소지었다.

"하여간 우리 둘째 딸 별스러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너랑 외출이 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불렀단다."

"우리...? 외출?"

데이블린이 마치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한쪽 눈썹을 찌푸리며 묻자 이졸데가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예쁘게 치장해야 할 일이 생겼어."

"치장이라고요?"

"너와 귀하신 분의 만남이 성사되었거든. 내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니 결코 결례를 보여선 안된다."

말을 마친 이졸데는 보란듯이 데이블린의 어깨를 감싸고 저택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나가면서 데이블린은 찌푸려진 인상을 펼 줄 몰랐다.

'내가 치장해서 만나야 할 만큼 귀한 사람이라니. 이 시점에서 그럴 만한 사람은 아그네스 뿐 아닌가?'

원작에선 이 무렵의 이야기가 그리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었다. 있다 하더라도 마넷과 아그네스의 연이 닿고 '데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엔 만날 만한 중요한 사람은 왕녀 아그네스 말고는 떠오르는 이가 없었다.

일단 마차에 올라타니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천천히 번화가 쪽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

"왜 이쪽으로 가죠?"

아그네스가 머무는 세실의 저택은 마차가 가는 방향과 정 반대였다. 아그네스에게 갈 거라면 이 방향이 아닐텐데? 하지만 이졸데는 여유롭게 미소지으며 무슨 소리냐는 듯 되물었다.

"그럼 번화가가 아니라 어딜 가는 줄 알았던 거니?"

"..."

"지금 워낙 입을 게 없어 대충 마넷의 옷을 입혔지만 이대로는 안돼. 네가 오늘밤 입을 옷을 사러 가는 거야."

"밤? 약속이 밤이에요?"

"그럼 밤에 만나야지. 낮엔 일로 바쁘신 분이니까."

아그네스가 낮에 바쁘던가? 그것까진 보지 못했으므로 알 수 없었다. 데이블린은 괜한 것을 물어 말실수를 하느니 입을 다물기를 택했다. 한참을 달리던 마차가 움직임을 멈춘 곳은 이졸데의 말처럼 번화가의 고급 의상실 앞이었다.

"어서오십시오. 래지스티나 후작 부인."

마차에 새겨진 문양으로 가문을 알아본 의상실 주인이 나와 이졸데를 맞이하자 그녀는 여유롭게 데이블린 또래의 숙녀가 입을 만 한 옷을 내오라고 명령했다.

"이 애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편이니 그런 인상을 보완하고 몸매가 강조되는 드레스면 좋겠어."

그 말에 데이블린은 다시금 인상을 찡그렸다. 왕녀를 만나러 가는데 몸매를 강조해서 어쩌자겠다는 건가? 하지만 드레스에 대해 조금의 상식도 없었으므로 그녀는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의상실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것은 가슴이 꽉 끼는 마넷의 드레스를 드디어 벗어던질 수 있었다는 것 말곤 아무 것도 없었다.

의상실에서 드레스를 사고 나와 헤어 살롱에서 피부 관리와 손톱 관리, 머리카락까지 다듬고 나오니 벌써 날이 어둑어둑하게 지고 있었다. 이졸데는 잘 꾸며진 데이블린을 보고 흡족한 눈치로 말했다.

"시궁창 쥐새끼 같은 줄 알았더니. 꾸며놓으니 꽤 볼만 하구나."

"뭘 하려는 건지 이제 말해요."

"별 거 아니야. 이제 곧 저녁 시간이구나. 이 차림 그대로 손님과 근사한 저녁 식사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되는거야."

"아그네스 왕녀님이 저와 식사를 하겠다 제안했단 말이에요?"

"아그네스 왕녀? 아하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도 참, 당연히 맞선이지."

"...그게 무슨."

이졸데는 웃으면서 삯마차를 하나 불러 세워 데이블린을 거기에 태웠다. 따라온 하녀가 마부에게 행선지를 말하는 사이 마차 안에 데이블린을 밀어넣은 이졸데가 즐겁다는 어조로 충고했다.

"내가 네 분수에 넘치는 훌륭한 신사와의 자리를 주선했으니 부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하. 지금 이거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영주님도 아침에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셨으니 영주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면 돌발행동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말을 마친 이졸데는 마차의 문을 쾅 닫고 노크해서 마부가 출발하게 했다. 데이블린은 마차에서 내릴 의욕조차 잃은 채 허탈해서 헛웃음을 내뱉었다.

"맞선?"

솔직히 그런 자리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맞아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집안 끼리의 결합이 가장 중요시 되는 만큼 이것저것 재보는 중에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게 정략결혼 아니던가. 더군다나 데이블린은 이런 강제적인 정략결혼이 처음도 아니었다.

'예상 외로 너무 좋은 집안과 매칭되니 샘이 난 신예지가 발광하는 바람에 다 엎어졌지만.'

이복 언니 신예지만 떠올리면 구역질이 치솟아 올랐다. 까맣고 청순한 생머리, 유순하고 처진 두 눈, 창백한 피부까지. 마넷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껍질로 사람을 속여서 남을 등처먹는 다는 점에선 한 치 다를 바 없었다.

'그래도 그 여자와 비교하는 건 귀여운 마넷에게 실례지. 신예지가 누군가와 비견된다면 차라리...'

차라리 아그네스 왕녀가 더 어울렸다. 그 악독함, 잔인함, 사람 목숨을 파리로도 보지 않는 비정함, 데이블린이 이 책에 빙의해 진심으로 '데이'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처한 상황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다.

무관심한 아버지와 학대하는 이복 언니, 언니의 학대를 숨겨준 가식적인 이복 오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새 어머니까지. 데이블린은 책을 폈을 때부터 이들이 한다는 후회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장을 읽고 책을 덮을 때 내린 결론은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는 것이었다.

멋대로 오해하고 이용한 이들에 의해 상처받은 '데이'는 뒤늦은 후회의 말 몇 마디에 녹아내려 그들을 용서해주기로 결심한다. 구구절절한 부연설명을 덧붙여도 결론은 그런거였다. 무결한 절대 선의 승리.

'그건 승리한 게 아니야.'

'데이' 혼자 모든 상처를 안고 가라앉아버린 것 뿐이다. 책에서까지 그런 인생을 살고싶지 않았다.

"도착했습니다."

상념에 빠져있던 사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한 마차의 마부가 문을 열며 말했다. 데이블린은 잠시 앉아서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

결혼으로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건 예전에도 했던 결심이었으니 어려울 것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삶이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얌전히 결혼해서 집을 나가줄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겠어. 쓸모가 있을 놈이면 내가 래지스티나 후작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줄거고, 쓸모없는 놈이면 일을 꾸민 이졸데에게 책임을 미루면 되니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니 하인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예약하셨습니까?"

"나도 모르겠으니까 데이블린 래지스티나라는 이름으로 알아 봐."

벤크번드 사교계의 지체 높은 인사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레스토랑의 내부는 한창 붐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즈넉했다.

"아, 여기 있네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부를 살피던 하인은 표정이 밝아져서 데이블린을 자리로 안내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며 레스토랑 안을 훑던 데이블린은 눈에 익은 붉은색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저건...'

그리고 풍성한 붉은 머리카락 새로 반짝이는 녹음같은 에메랄드빛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데이블린을 불렀다.

"래지스티나 양!"

"아..."

그녀는 자신이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뚱뚱한 남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누런 이가 드러나도록 찢어지게 웃는 남자는 처음보는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저를 처음 보시겠군요. 전 패트릭 슈나이저 자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자 뒤늦게 어젯밤 아그네스의 파티가 생각났다. 그곳에서 이졸데는 이 자와 붙어 파티내내 무언가 쑥덕거리며 즐거워했었다.

'나를 이 자에게 보내버리려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거로군.'

데이블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어차피 정상적인 남자를 준비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목 뒤로 넘긴 뒤 자리에 착석했다. 슈나이저 자작이 자신의 드러난 쇄골과 목선을 훑어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이졸데가 뿌린 함정이란 게 고작 이런 것이었나 싶어 코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슈나이저 자작이라니, 생각보다 괜찮은 인간을 골랐잖아.'

못생기고 욕심 사납긴 하지만 집안마저 더러운 자로 고르지 않은 것은 분명 후작의 눈치를 봤거나 래지스티나 가문의 격을 생각한 것일 터다.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다 이건가.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 마넷은 근방의 자작가 차남을 하나 골라 결혼하게 된다. 래지스티나 후작이 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보다 신분이 낮지만 안정적인 세수를 거두는 영지를 물려받은 자작가의 차남은 가문에서 기반을 다지기 제법 괜찮은 신랑감이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결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데이'와 다르게 조건 맞는 남자와 빠르게 결혼한 마넷은 결국 래지스티나 후작가를 이어받고 가주의 이름으로 '데이'를 쫓아내게 된다.

'그렇게 당해줄 수는 없지.'

마넷이 이미 수법을 알려줬으니 그걸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 데이블린은 조건만 맞다면 이 자와 결혼까지 갈 용의가 있었다.

"정말 반가워요. 전 래지스티나 후작님의 차녀, 데이블린이라고 합니다."

"이것 참 아름다운 분과 이렇게 인연이 닿으니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슈나이저 자작이 기름진 얼굴을 닦아내며 능글맞게 웃었다. 그 또한 데이블린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질색할 줄 알았던 래지스티나의 아름다운 차녀가 생각 외로 사근사근하게 나오자 자신감이 치솟았다.

'그럼, 자기가 아무리 후작 영애입네 콧대 세워도 전처의 딸이면 살 구멍을 찾긴 해야지.'

서로 뜻이 맞았으니 잘 된 일이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신변잡기를 시작 하려던 찰나였다.

쾅!

두 사람이 마주 앉은 테이블 사이로 술잔 하나가 폭탄 마냥 거칠게 내리 꽂혔다. 술잔을 가져온 이는 곱게 휘어진 초록색 눈동자와 다르게 술잔을 쥔 손에 시퍼런 핏줄이 올라올 만큼 두껍고 탄탄한 팔뚝을 드러낸 채였다.

"지금 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슈나이저 자작이 당황해서 묻자 갑자기 난입한 불청객이 어젯밤과 달리 새카만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린 탓에 머리카락에 살짝 덮인 에메랄드 색 눈동자가 장난기를 담고 반짝반짝 빛났다. 쭉 뻗은 콧날과 선이 뚜렷한 입술만 보이는 그는 씩 웃으며 대꾸했다.

"이쪽 신사 분이 술잔 보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처들어."

"누가... 술을 보내?"

어이없어하는 데이블린의 말에 세실이 활짝 미소짓더니 천진난만하게 자신을 가리켰다.

"나 말야, 나."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세실이 여기 있다는 건 아까 본 붉은 머리가 정말 아그네스였다는 거야?'

데이블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아려는데 세실이 또 그녀의 어깨에 팔을 얹으며 자연스럽게 옆 자리에 바싹 붙여 앉았다.

"나야 뭐, 여기 저기 있지."

"지금 나랑 장난 해?"

"장난은 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새낀 뭐야? 자기야, 나 정말 실망이야. 가녀린 내 마음이 상처 입은 것 좀 봐."

그렇게 말한 세실은 데이블린의 손을 덥석 붙잡아 탄탄한 가슴팍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를 가느다랗게 바꿔 억지로 흑흑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마음의 준비하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 질투하라고?"

"뭐라는 거야?"

"그래! 좋아! 이럴 거면 그냥 내 모든 걸 가져 가!"

"입 안 닥쳐?"

당황한 데이블린과 마찬가지로 벙쪄있던 슈나이저 자작은 장난치는 듯한 세실의 말투를 듣고 열이 올랐는지 시뻘게진 얼굴로 테이블을 쿵쿵 내리쳤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키시어드 대공!"

"내가 누군지 아네? 자기야, 이 새끼 만나는 동안 내 이야기만 한 거야? 감동이야."

언제는 실망이라더니 갑자기 감동이라지를 않나 진정 미친놈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키시어드 대공인 이상 슈나이저 자작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왕족의 핏줄을 이은 키시어드 대공의 이름은 벤크번드 근교 시골 출신에겐 듣기만 해도 공포에 떨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여기 무슨 구닥다리 선자리 같은데 말이야."

"선자리인 걸 알면서 술을 보내? 이런 미친 새끼."

"자기가 날 자극하니까 그렇지."

세실은 깜찍하게 윙크하며 레스토랑 바닥을 가리켰다.

"이제 이 동네 웬만한 곳은 아그네스가 접수한 거 알잖아."

"왕녀님의 명성이 당신 명성이다?"

"새삼스럽게 모르는 척은. 계속 내빼니까 꼭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같다. 괜히 설레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입을 열고 싶지 않아졌다. 계속 자신이 배재된 상태로 돌아가는 대화를 보고 있던 슈나이저 자작은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래지스티나 양. 교제 중인 분이 계신 줄은 몰랐군요."

"네?"

"연인과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푸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그가 누가봐도 화난 얼굴로 레스토랑을 나서자 뒤늦게 음식이 나왔지만 나올 때를 놓친 음식처럼 나가버린 슈나이저 자작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왜 저 돼지를 뒤쫓아 가기까지 해야 해!'

데이블린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만 세실이 일을 망쳐놓고 수습할 생각이 없는 이상 슈나이저 자작을 뒤쫓는 건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신경질적으로 일어난 그녀는 세실을 밀치고 서둘러 자작의 뒤를 쫓아갔다.

"자작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슈나이저 자작의 마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며 가만히 서 있자 느긋하게 뒤따라 나온 세실이 떠나는 자작의 마차를 웃으며 바라보았다.

"오해면 지금부터 사실로 만들면 되지."

"젠장...! 당신 나한테 감정 있어? 왜 이러는 거야?"

"그걸 여태 몰랐어? 너무 둔감하면 연애할 때 곤란한데."

악감정 있느냐는 소리를 멋대로 곡해해 알아들은 세실은 유들유들 대꾸하고선 항상 그렇듯 데이블린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귓가에 속삭였다.

"첫 만남 하니까 말인데, 새 일자리가 싫으면 새 선 상대라도 알아봐 줄까?"

"하! 누구? 내 새 고용주이자 남편도 되실 세실 키시어드?"

"오, 내 이야긴 아니었는데. 부끄럽지만 네가 지목하는 거라면 받아들일게."

"말을 말자."

데이블린은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팔을 양손으로 잡고 거의 집어던지듯 밀어내고 무작정 세실과 반대편으로 걸어나갔다.

"어디 가, 부인!"

"닥치지 못해?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죽여버릴 테니까 각오해!"

"그거 죽여주게 근사한 일 벌이겠다는 뜻인가?"

"꺼져!"

남들이 보든 말든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한 바탕 설전을 벌인 데이블린은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세실은 끝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치근거렸지만 질색팔색하는 그녀를 보고 다행히 일곱 번까지 권하지는 않았다.

다행이었다. 더 권했으면 귀한 왕가의 혈손에게 정말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데이블린 그게 얌전히 마차에 타더란 말이에요?"

"그래. 상대 남자 얼굴도 모르고 줄래줄래 따라가는 꼴이라니. 하아, 남자 밝히는 제 엄마를 너무 닮아 어떡해야 할 지 모르겠다."

"자기 엄마처럼 팔자나 꼬겠죠. 뭘 걱정 해요?"

한밤에 모녀가 오붓하게 티타임을 나누던 중, 저택 현관에 우당탕탕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지?"

"제가 내려가 볼게요."

"아니, 어차피 이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라 해봤자 데이블린 뿐일테니 내가 내려가마."

마넷을 막은 이졸데가 다과실 밖으로 나오자 마침 2층으로 올라온 데이블린이 그녀의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데이블린, 오늘 식사 자리는 어땠니?"

"..."

식사가 어땠느냐고? 말만 들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대로 슈나이저 자작과의 선이 파투났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이졸데의 조롱과 너 때문에 후작이 곤란해질 거란 겁박 밖에 없을 터였다.

그러든 말든 당장이라도 방에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데이블린은 잡념을 꾹 누른 채 피곤한 얼굴로 아무렇게나 뇌까렸다.

"오늘 선 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

"네. 그분도 절 썩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도 그분이 만족스러워요. 결혼도 순탄할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이니?"

기뻐하는 이졸데를 보고 자조한 데이블린은 대강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버렸다. 발 아픈 구두에 예쁘게 고정된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느라 하루종일 피곤해 죽는 줄 알았다.

간단히 세수만 하고 잠들 생각으로 방에 딸린 욕실 문을 연 순간, 데이블린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탕에 따뜻한 훈기가 피어오르는 물이 담겨져있고 옆엔 피로회복에 좋은 아로마 병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눈을 끔뻑이는데 가지런이 놓인 보송보송한 수건 위로 짧은 카드가 놓여져 있었다.

'하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으실테니 따로 사람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험프리..."

집사의 카드는 처음 보지만, 말투만큼은 누가 봐도 그였다. 데이블린은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나와 바로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마넷은 데이블린만 보면 기분 나쁜 비웃음을 흘려댔고 이졸데는 그 며칠 사이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덕분에 내내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그건 환상적인 자리를 대접해 줘서 고맙고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다는 슈나이저 자작의 편지였다.

래지스티나 후작과의 결혼으로 겨우 벤크번드 사교계에 낄 수 있게 되었지만 여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역사가 없는 이졸데는 편지를 받고 뛸듯이 기뻐했다.

'데이블린이 쓸모있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그녀가 입가를 가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저 쓸 데 없는 애물단지라고만 여겼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 몰랐다. 제 한 몸 바쳐 어머니의 체면을 살려주니 효녀라면 효녀였다.

마침 오늘 밤 열리는 부부 동반 사교 모임에서 귀부인들에게 슈나이저 자작과의 친분을 과시할 속셈으로 신이 난 이졸데는 외출 하기 전 들러붙는 맏딸을 떼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마넷, 여긴 네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왕녀님도 계신다면서요! 그리고... 왕녀님이 계시면 키시어드 대공도 계실거고요!"

마넷이 부끄러워하며 본론을 뒤에 붙이자 이졸데가 귀여운 딸을 향해 못 말린단 분위기로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당장은 아그네스 왕녀님의 분노가 풀어질 것 같지는 않구나. 하지만 오늘 슈나이저 자작님과 함께 아그네스 왕녀님께 잘 이야기 해보면 대공 각하께 말을 걸어 볼 기회가 올지도 몰라."

"세실에게 바로 제 이야기를 해보는 건요? 세실이 저를 아그네스 왕녀님께 소개해줄 지도 모르잖아요!"

마넷이 꿈에 부풀어 이졸데의 손을 잡고 방방 뛰며 말하자 이졸데의 안색 이 조금 창백해졌다.

"마넷! 세상에, 너 어떻게 대공 각하의 이름을 막 부르니?"

"뭐 어때요. 저번에 보니 데이블린도 막 부르던데."

"그건 쟤가 못 배워 먹은 애니까 그런 거고! 넌 교육 잘 받은 래지스티나 후작가의 장녀라는 걸 항상 잊어선 안된다."

"치..."

볼멘 소리를 낸 마넷은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으나 어머니의 말에 토를 달진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카우치에 앉아있던 데이블린은 모녀가 쌍으로 착각에 빠져있는 꼴을 한심하게 여겼다.

'슈나이저 자작과 같이 가서 아그네스에게 말을 붙여보겠다고?'

세실을 통해서 아그네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건 그가 아그네스보다 더 말을 붙이기 어려운 이기 때문일터다. 세실 키시어드는 실제로 만나보니 의외인 점이 많았지만 소설에서나 현실이 되어서나 변하지 않는 건 주변인들이 그를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점이었다.

래지스티나 후작이 고작 라이렌 백작위 하나로 디트리히 왕세자가 아닌 아그네스 왕녀의 줄에 서겠다 마음 먹은 건 아닐거다.

그가 원하는 건 결국 그녀의 뒤에 버티고 있는 두 명이었다. 국왕, 그리고 키시어드 대공.

개중 후작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둘의 영향력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인 디트리히보다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거겠지.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작별인사를 하다가 염병을 떨던 모녀가 드디어 헤어질 마음이 들었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후작이 준비를 끝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만 출발하지."

"네, 여보. 마넷, 우리가 늦더라도 일찍 자야 한다."

"걱정 마시라니까요. 가서 왕녀님과 세실에게 제 이야기나 잘 해주세요. 네? 네에?"

"그래, 그래."

후작과 이졸데가 현관을 나가서 마차에 올라타는 것까지 창문으로 지켜보던 데이블린은 삽시간에 조용해진 집 안의 침묵 속에서 한 마디도 말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넷도 마찬가지였다. 싸울 때가 아니면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는 자매는 서로 흩어져 자신의 방에서 할 것을 하다 잠들었다. 그리고 저택의 고용인들도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었다.

조용한 저택 안에 째지는 듯 히스테릭한 이졸데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데이블린! 데이블린 래지스티나 너 어디있어!"

"마님, 제발 진정을..."

"이 멍청한 계집애 어디 붙어 있는거야!"

잠에 빠져 있던 데이블린은 자신을 부르는 시끄러운 고함소리를 듣고 서서히 눈을 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잠그고 자는 방문을 하녀가 콩콩 두드리고 있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잠시만 나와보세요. 네?"

"나갈테니까 재촉하지 마."

데이블린이 문을 열자 얼굴이 파래진 하녀가 오들오들 떨면서 입을 열었다.

"마님께서 아가씨를 찾고 계세요."

"나를? 왜?"

"그, 그게."

"데이블린! 당장 나오지 못해? 데이블린!"

"휴."

온 집안이 울리도록 소리치는 이졸데를 깨닫고 한숨 쉰 데이블린은 알겠다는 듯 손을 휘젓고 1층으로 내려갔다.

"무슨 일이세요?"

"너! 어떻게 된거야? 슈나이저 자작에게 무슨 실례를 저질렀길래 그 자가 내게 그 따위 대접을 해?"

"슈나이저? 그게 누구지? 제가 거기서 만난 건 키시어드 대공 각하인데요."

"뭐라고?"

기분 좋게 파티에 참석했던 이졸데는 가장 먼저 슈나이저 자작에게 반갑게 인사했다가 편지 내용과 다르게 냉랭하기 그지없는 자작과 마주해야 했다.

자작은 부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런 자리를 주선했느냐며 역정을 내더니 가버렸다.

그리고 평소엔 콧대가 높아 상대조차 안해주던 근방의 귀부인들이 물 밀듯이 밀려와 딸에 대해 물었다. 문제는 장녀가 아닌, 차녀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마넷이 점찍었다고 난리피웠던 세실 키시어드 공작과 데이블린의 염문을 봤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다.

'아주 다정한 사이 같아 보이던데요?'

'언제 그렇게 사이가 진전 된 거죠? 비법이 뭐예요?'

이졸데는 귀찮게 달라붙으며 친한 척 하는 귀부인들에게 환멸이 났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서 알은 체 해오는 신사들과 포커 게임을 하러 간 후작 뿐이었다.

데이블린은 없었지만 키시어드 대공 장본인이 파티에 참석해 있었는데도 귀부인들은 그에게 말 한마디 조차 붙이지 못했다.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아그네스 왕녀보다 손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대공에게 행여나 심기를 거스를까 겁이 났던 탓이다.

자연히 군중들이 이졸데에게 모였다. 곤란해진 그녀의 사정을 알면서도 세실은 아무런 부정도 긍정도 없이 돌아가는 상황을 팔짱을 낀채 구경만 했다.

그 야속한 모습을 보고 막막해진 이졸데는 포커를 하러 간 후작이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저택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런데 데이블린이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난 게 키시어드 대공이었다고?'

그렇다면 슈나이저 자작은 바람 맞은 건가? 지금으로서는 길이 엇갈려 잘못 만나게 된 것처럼 말하는 데이블린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몹시 미심쩍고 이상하지만 말이다.

'저 포악한 계집애가 얌전히 선 자리에 갈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 자리까지 따라 갔어야 했는데.'

어쨌든 세실과 뭔가 진전이 있긴 한 모양이라며 이졸데가 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데이블린은 딴 생각 중이었다.

대낮의 레스토랑 앞에서 대공과 욕하고 싸운 죄가 있다보니 이졸데가 그걸 트집 잡아 손찌검을 해도 이번만큼은 참아줄 예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이졸데는 다른 것을 따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게 감히 키시어드 대공과 잘 되어간다고? 그럼 우리 마넷은? 대공이 저 계집에게 빠졌다면 후작위를 안겨 주려고 수작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데이블린에게 자행된 학대가 단순히 제 새끼만 예뻐하는 것을 넘어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었던 만큼, 이졸데는 데이블린이 권력과 가까워질 것 처럼 보이는 게 두려워졌다.

'이렇게 된 이상 겁을 줘서 제 손으로 대공과 거리를 두게 하는 수 밖에.'

최근 들어 부쩍 건방져지긴 했지만 '데이' 시절의 심약한 성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터라 겁줘서 대공을 포기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이졸데가 굳은 마음을 먹고 손을 들어올렸을 때였다.

"마님! 영주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영주님이?"

"이졸데. 이게 다 무슨 난리지?"

기분 좋은 얼굴로 저택에 들어온 후작은 손을 든 이졸데와 얌전히 서 있는 데이블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 여보.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건방져서...! 그래요, 건방져서 훈육 좀 하려고 그런거예요. 이 자리에 당신이 아닌 국왕 폐하가 온다 한들, 어머니가 딸 좀 교육시키는 게 그리 문제될 일인가요?"

작히나 흥분했는지 이졸데로서는 드물게 후작의 말에 대거리 했다. 후작은 건방지게 말대꾸하는 이졸데를 기가 막히다는 기색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국왕 폐하는 아니지만 왕족의 인장이 찍힌 전보가 여기 있군. 그래도 훈육을 계속 해야겠는가?"

그 말을 듣고 이졸데와 데이블린, 두 사람 모두 후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왕족 이라고요?"

뒤늦게 정신이 든 이졸데는 자신이 후작에게 대들었다는 것과 왕족이 보낸 편지라는 말에 혼비백산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데이블린. 네가 직접 봐라."

데이블린은 자신에게 내밀어진 편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뜯었다. 지금 후작이 들고 올만한 왕족의 편지라함은, 결국은 아그네스의 편지라는 뜻이었다.

[데이블린 래지스티나양에게.

내일 정오 무렵 점심 식사에 그대를 초대하고 싶소.

다른 사람 없이 그대 한 사람만 초대한 자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며 내일 점심을 고대하겠네.]

거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제안이었다.

'그래도 나쁠 건 없어.'

방법이 어찌됐든 아그네스가 마넷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왕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라면 오늘 이졸데가 분통을 터뜨린 이유와 다를 바 없을 터였다.

'자신의 후원자인 세실과 연관되었으니 관심을 보이는 거야.'

처음 계획에 마넷의 총애를 빼앗아오는 것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법이 마땅치 않아 폐기되었던 계획이 원작 중반에나 등장했어야 할 세실을 통해서 이루게 될 줄은 몰랐다.

"아주 쓸모없는 놈은 아니었네."

"왕녀님이 네 행실을 지적하시든? 응?"

마치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 같은 이졸데의 말에 데이블린이 헛웃음을 짓고서 말했다.

"왕녀님께서 저를 내일 점심식사에 초대하셨어요."

"뭐, 뭐야? 그분이 너를 초대했다고?"

당황한 이졸데를 보고 여유로워진 데이블린은 후작을 힐끔 봤다가 이졸데에게 말했다.

"한 대 맞아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왕녀님께 부은 뺨을 뭐라고 설명해야할 지 모르겠으니 오늘 때리긴 힘드시겠네요."

"역시 초대 편지였군. 친구들과 포커를 하던 도중 왕녀님의 시종이 와서 이걸 차녀에게 전해주라더군. 잘했다, 데이블린!"

'데이'가 되고 나서 후작에게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하지만 그건 비단 자신에게만 처음이 아닌, '데이'조차 처음 들어본 것일거라 짐작했다.

'데이'라면 기뻐서 펄쩍 뛰었을 지도 모르지만 데이블린에겐 저 칭찬에 얼마나 많은 계산 끝에 건네어진 것인지 너무나 잘 와닿았다. 이졸데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화냈다.

"왕녀님이 대체 왜 널 초대한다는 거냐?"

"어머니가 들은 소식을 왕녀님께서도 들은 거겠죠."

원작에서 읽은 아그네스는 건방지게 굴지만 않으면 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당히 무뚝뚝한 사람이었으므로 상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소설 속에서 마넷이 혼날 때 했던 말투나 행동거지만 피하면 중간은 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야기 다 끝나신 줄 알고 저는 이만 자러갈게요. 중요한 자리에서 조느라 가문 명예에 먹칠하면 안되니까요."

"이게 끝까지 한 마디를 안 지려고...!"

이졸데는 몹시 분해했지만 후작 앞이어서인지, 아그네스의 편지 탓인지 아까처럼 당당하게 소리치지는 못했다. 되레 내일 악을 쓰고 난리 날 친딸을 달래느라 진땀이나 빼겠지. 데이블린은 후작을 향해서 고개를 꾸벅 숙인 후 편지를 들고 방 안으로 돌아갔다.

뒤에서 분노하는 이졸데와 만류하는 하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까처럼 당장 나오라고 기세 좋게 행동하는 새어머니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넷이 깨자 집안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그게 사실이야? 데이블린만 초대된 게 사실이냐고!"

"죄송합니다. 아가씨..."

"누가 죄송하다는 말이 듣고 싶대? 사실이냐고 묻잖아!"

"사실이라고 하면 네가 손부터 들어 올릴텐데 어떻게 말해? 이 집안에 네 행동 패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멍청하긴."

날이 밝고 1층으로 내려오던 데이블린은 애꿎은 화녀에게 화내고 있는 마넷을 향해 구박을 줬다. 마넷은 분해 죽겠는지 "참 나! 어이없어!" 하면서 이를 갈았으나 방금 들은 사실이 못내 서러웠는지 눈가에 물기가 고이고 있었다.

"왜, 왜 너만 초대하신건데. 편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머지 한 통을 빠뜨린 거 아니냐고."

"나야 모르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같이 갔다가 너만 문전박대 당하면 되겠다."

천진하게 대꾸하는 데이블린에게 더 열이 오른 마넷은 인형을 끌어안고 카우치에 파묻혀 발을 쾅쾅 굴렀다. 그러든 말든 신경을 끈 데이블린은 마넷의 허락도 없이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아가씨! 거긴 마넷 아가씨의 방인데요!"

"그래서 뭐?"

"네?"

하녀가 당혹스럽게 되묻자 데이블린이 지그시 인상을 썼다.

"동생인 내가 우리 언니 방에 들어가는 데 뭐 문제있니?"

"아, 아닙니다."

어젯밤 기뻐하던 후작의 표정을 봤으면 적어도 오늘 하루 만큼은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예상대로 하녀는 맥 없이 물러나 마넷의 방에 침임하는 자신을 모른 척 해주었다. 방과 연결된 드레스 룸안을 살피니 역시 제 분수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자매끼리 나눠입자, 마넷?"

장본인 없이 동의를 구한 데이블린은 보이는 중에서 가장 그럴 듯한 옷을 골라 걸쳐보았다. 보아하니 중요한 날 입겠다고 개시도 안 한 거겠지.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마넷이 가진 모든 게 원래 '데이'의 것이었는데.

드레스들이 전부 맞춤옷이라 그런지 체격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다. 밑단과 팔 기장이 좀 짧은 걸 감안해도 못 입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다행이었다.

데이블린은 적당히 옷을 걸치고 팔찌나 반지, 귀걸이같은 장신구도 아낌없이 사용해 치장했다.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자 하녀 하나를 붙잡고 분풀이를 하고 있던 마넷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잘못 보기라도 했는지 눈을 비비더니 기막혀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데이블린! 너, 너. 지금 뭘 입은 거야?"

"드레스. 나랑 어울리지?"

데이블린이 보란듯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쭉 뻗어 보였다. 예상대로 마넷이 아끼던 드레스였는지 화부터 냈다.

"미쳤어? 당장 벗어!"

"미안한데 이건 한동안 내 거야."

"벗으라고!"

"입을만큼 입고 질리면 도로 가지든가 말든가. 그럼 이만."

말을 끝낸 그녀는 후작이 손수 명령해 준비해 준 마차에 올라탔다. 원래 귀족 영애가 외출을, 그것도 남의 집을 방문하려면 하녀 하나쯤은 동행해야하지만 하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후작이 따로 내린 명령이 없기 때문이었다.

데이블린은 하나쯤 데리고 갈까 하다가 이내 생각을 바꿨다. 믿을 수 있는 하녀가 없는 이상 오히려 후작이나 이졸데, 마넷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이를 달고 가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마차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상큼하게 웃으면서 인사만 건넸다.

"나 없는 동안 집 잘 보고, 귀여운 마넷도 부탁해."

"네, 네에."

하녀들의 자신없는 대답과 아직도 길길이 날뛰는 마넷을 보고 피식 웃은 데이블린은 마차의 벽을 두드려 마차를 출발시키게 했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아그네스의 저택, 즉 세실 소유의 벤크번드 여름 별장은 파티 이후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조경이 바뀌어 있었다. 달라진 저택의 정원을 훑어보다 현관에 다다라 종을 흔들었다. 그러자 잠시 후 서글서글한 인상의 젊은 청년이 나와 인사를 건넸다.

"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기로 예정되신 데이블린 래지스티나 양 맞습니까?"

"그래."

"왕녀님께서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데이블린은 청년의 뒤를 따르며 그를 힐끔 바라봤다. 입고 있는 옷은 집사복인데, 이만한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다.

'임시로 고용한 자인가?'

아그네스의 소굴에 혼자 온 것이니 만큼 방심하고 싶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때, 야외 식당이라는 곳의 규모가 제대로 드러났다.

이름만 들어선 단순히 저택 정원에서 식사하는 자리인가 했더니 후원에 커다란 인공 연못이 있고 그 위에 길을 이은 뒤 식탁을 놓은 특이한 구조였다.

'돈 더럽게 많이 들었겠네.'

시답잖은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인공 연못 반대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그네스."

굵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세실?'

그런데 나른한 기운을 풍기는 세실의 목소리 치고는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진중한 톤이 아무리 떠올려도 들어 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나 혼자 초대한 자리니 편하게 오라던 말이 거짓이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그네스에게 밉보였던 걸지도 모르지. 먼저 도착한 남자가 데이블린을 엿 먹일 인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먼저 들른 손님인지는 몰라도 어딘지 나쁜 예감이 들었다.

마침 야외 식당을 가린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지나치자 로브를 뒤집어 쓴 여행자같은 청년 하나와 아그네스 왕녀, 그리고 불량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있는 세실이 보였다.

"정말 오래간만이군."

"못 본 사이에 농담이 늘었네. 나를 고문범으로 몰아 이 시골로 내쫓은 게 누군데 오랜만을 운운해?"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널 보내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었다."

내용은 변명인데 어째 말투는 하나도 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조금 더 듣고 끼어들 요량으로 걸음을 늦추고 있을 때였다. 같이 걷던 젊은 집사가 왕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왕녀님! 래지스티나 영애가 도착하셨습니다!"

데이블린은 속으로 욕지기를 중얼거렸다.

'이래서 애송이에게 집사 자리를 맡기면 안된다니까.'

먼저 온 손님이 있는데 지금 끼어들면 자신의 입장이 뭐가 되겠나. 아니나다를까 고개를 돌린 왕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벌써 도착했어?"

아그네스가 말한 정오 조금 전이긴 했지만 그리 이른 시간도 아니었다. 로브를 뒤집어 쓴 청년은 예정된 손님의 등장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손님이 올 예정이었나 보군."

"정답이야. 그러니 눈치가 있으면 그만 꺼지지 그래?"

다리 한 짝을 허벅지에 올린 채 턱을 괴고 있던 세실이 로브 청년을 향해 공격적으로 말했다. 악마처럼 웃는 잘생긴 얼굴은 여전해서, 그가 농담을 하는건지 진심으로 무례한 말을 하는 건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오늘은 사정이 좀 급해서 세실 네 심술을 받아주고 있을 여유 없다."

"어쩐다. 난 네놈보다 데이랑 밥 먹는 게 더 중요한데."

"데이? 그게 누구지?"

그렇게 말하며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바람에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내려와 있던 로브 모자가 젖히며 남자의 단단한 턱, 긴 여행 탓인지 살짝 부르튼 입술, 조금 여윈 뺨과 상대를 쏘아보는 듯한 강렬한 자주색 눈동자가 드러났다. 순혈 왕족의 상징이라던 디트리히의 자색 눈동자가. 거기에 이르러서 데이블린은 잠시 머리가 멍해져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숙녀 분, 괜찮으십니까?"

"네놈 눈 색 때문에 놀란 거잖아, 젠장."

세실도 놀라 다가오려 하자 데이블린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남자를 멈춰 세웠다.

"네, 괜찮습니다. 디트리히 왕세자 전하."

"...순행지에선 대다수 못 알아보던데, 숙녀분께서 수도에 와본 적 있나 보군."

"수도에..."

데이블린은 인상을 찌푸렸다. 수도에 와봤느냐고? 가본 적은 없지만 원작에서 불과 몇 년 후 '데이'가 겪게 될 일은 읽어서 알고 있다.

아그네스의 편에 붙은 마넷은 '데이'의 모든 걸 빼앗고 가문에서 쫓아낸다. 정처없이 나라를 떠돌던 '데이'는 우연히 흘러들어 간 수도에 마치 지금처럼 정체를 숨긴 왕세자와 만나게 됐었다.

우연한 사고로 만나게 된 그는 '데이'의 묘사 속에서 '무뚝뚝하지만 엉뚱하고 다정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어서, '데이'는 순식간에 그에게 빠져들고 말았다. 왕세자도 '데이'에게 빠진 건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을 갈라놓은 그 날 사건만 아니었다면 쭉 행복했겠지. 사건은 마넷의 결혼으로 정략혼을 지낼 딸이 부족해진 래지스티나 가문의 욕심에서 생겨났다.

국왕의 생일 파티 날, 왕성 무도회장엔 '데이'가 아는 떠돌이 디트리히가 아닌 왕세자 디트리히가 있었고, '데이'또한 래지스티나 후작의 차녀 '데이블린'으로 참석해야 했다.

데이블린의 머릿속에 과거 봤던 원작 속 구절들이 스쳐 지나갔다.

'데이…가 아니라, 그게 당신 이름이었군.'

'데이'는 생각했다. 숨기려던 것은 아니었다. 넓은 연회장에서 단박에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까지 줄곧 그렇게 생각했다.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고. 하나 굳은 디트리히의 표정을 목도하자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숨기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싫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받은 학대. 남의 자리를 차지한 의붓언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데이'가 가장 끔찍해했던 건 버릴 수 없는 가문의 낙인이었다.

마넷은 왜 하필 왕녀에게 붙어야 했는지.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겼던 자신은 왜 래지스티나의 이름을 뒤집어쓰고 당신 앞에 서 있는지.

'왕세자 전하. 드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고.'

'데이'가 깨물고 있던 입술은 이제 핏기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허옇게 질렸다. 말을 할수록 잘못되어만 가고 있었다. 그 높은 긍지가, 고귀한 자색 눈동자가 빛을 잃고 '데이'를 빗겨나갔다. 예감할 수 있었다. 디트리히가 고하는 마지막이다.

곧장 몸을 돌려 자리를 뜨려는 디트리히의 팔을 붙잡았다. 스스로가 비참해 견딜 수 없으면서 매달리는 방법밖에 몰랐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울음기 섞인 목소리가 자신이 듣기에도 참 볼품없었다. 위로받고 싶었고, 아픔을 헤아려줬으면 했다. 한 마디만 물어봐 준다면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래지스티나 차녀는 처음부터 없었다. 두들겨 맞고 개처럼 끌려온 당신의 '데이' 뿐이었다. 학대와 고독으로 점철된 역사를 당신이라면 공감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디트리히가 잡힌 제 팔을 물끄러미 내려보더니 이어서 '데이'의 절박한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무뚝뚝한 그가 전에 딱 한 번 보여줬던 달콤하고 상냥한 미소였다.

'내가 레이디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데이'는 믿을 수가 없었다. 디트리히가 제 팔에 잡힌 손을 정중하게 떼어내고 '데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면 나도 화가 날 것 같네요.'

'디, 디트리히...'

멀어지는 디트리히의 뒷모습을 보며 '데이'는 처음으로 온전히 세상을 원망했다. 한 번도 다정한 적 없었던, 가혹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상념에서 빠져나온 데이블린은 차가운 눈길로 정면을 노려봤다.

'데이'를 사랑한다더니 같잖은 오해로 내버리고 필요해지자 다시 주워 래지스티나 가문의 반역자로 만든 그 남자, 디트리히 베니에 뤼터를 향해.

대대로 뤼터 왕가가 지배해 온 이 왕국에는 한 가지 특이한 편견이 있었다.

왕국의 국기 색깔이자 동시에 건국왕의 눈 색깔인 자색을 지닌 국왕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고만고만한 후계자라면 조금이라도 더 자색에 가까운 자를 골랐을 정도로 자주색깔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다.

하나 정작 건국왕의 눈동자는 빛에 따라 일견 자색으로 비춰질 뿐인, 본래는 푸른색 눈동자였다.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부질없는 짓거리가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왔다.

왕조 초반엔 그럭저럭 잘 지켜지던 자안紫眼 국왕 신화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그네스 왕녀의 어머니인 줄리아 2세였다. 줄리아는 아그네스와 같은 적갈색 눈동자를 가지고도 오빠인 선대 키시어드 대공을 꺾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인 귀족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눈동자 색으로 후계자의 가능성을 점치곤 했다는 점이다. 암암리에 아그네스 왕녀가 의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저 눈동자 색을 가지지 못해서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디트리히는 아그네스와 달랐다. 건국왕도 가지지 못했던 완벽한 자줏빛 눈동자를 지닌 왕세자는 귀족과 국민의 강한 지지를 받았고...

'저 자색이 비호하는 한 디트리히의 치세는 영원히 지지 않는 채 결말이 나겠지.'

데이블린은 그가 얼마나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지, 얼마나 약속된 성공을 거머쥘 지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를 보자마자 배알이 뒤틀렸다.

'데이'를 배신했고 자신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원작의 남자주인공. 두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저 자에게 무슨 짓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해치고 싶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밟아버리고 싶었다.

아직 자신의 힘이 미약하여 디트리히만큼 강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면, 저 눈깔 아래 바쳐진 영광을 빼앗으면 될 일이다. 데이블린은 이번에는 결코 디트리히의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겠노라고 입술을 사리물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이 숙녀 분이 내게 화가 났다는 것 하나 만큼은 잘 알겠어."

난데없이 노려보는 데이블린을 본 디트리히가 그렇게 말하자 세실이 킬킬 웃었다.

"눈치가 아예 죽진 않아서 다행이네. 얼른 사라져 디트리히."

"숙녀분께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급한 사안을 전하려고 온 거다. 시간을 내어 다오, 아그네스."

아그네스 왕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급한 사안을 가지고 왔다는 디트리히와 먼저 말을 꺼내 초대한 데이블린. 어느 쪽도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그녀는 먼저 디트리히에게 물었다.

"숙부님과 관련있는 일이냐?"

"우리 아버지는 관계없다. 너와 관련한 일이지"

"나?"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 못 한다."

디트리히는 그렇게 말하면서 데이블린을 힐끔 눈짓했다. 낯선 사람이 있으니 함부로 말 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러자 아그네스의 마음 속 추가 디트리히에게로 기운 듯 보였다. 그녀는 이내 몹시 미안하다는 표정을 자연스럽게 꾸며내어 데이블린을 향해 입을 뗐다.

"정말 미안하지만, 래지스티나 양."

"데이, 그럼 나와 식사하러 갈까?"

"뭐?"

이 자리의 누구든 짐작할 수 있을 아그네스의 뒷말을 잘라낸 세실이 난데없이 데이블린을 향해 식사 제안을 건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공."

"너 지금 왕녀한테 바람 맞기 직전이잖아. 저런 말 들어봤자 기분만 더럽지 않나? 나랑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고."

별난 자세로 앉아 있던 세실이 용수철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서 데이블린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아그네스가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나와 디트리히를 단둘이 두겠다고? 진심이냐, 세실?"

"넌 밥 먹을 때도 지켜줄 거트루드가 있잖아. 난 하는 것도 없으니 데이랑 식사하러 갈거야."

"네가 왜 하는 게 없어...!"

아그네스가 세실을 붙들어 두려 하자 세실이 한쪽 입매를 비틀어 웃으며 디트리히를 바라봤다.

"그래서. 불청객인 네가 입 닥치고 여기서 밥 먹을래, 아니면 파투난 자리에서 개밥이나 주워 먹을래?"

"말이 심하군, 키시어드 대공."

"이럴 때만 완장질이네. 어디서 대공, 대공거리고 있지? 내가 만만해?"

세실이 데이블린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디트리히를 향해 가볍게 으르렁거리자 아그네스가 이마를 짚고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소 어리둥절하게 두 남자 사이에 껴있던 데이블린을 향해 말했다.

"아까 하려던 말은 사과하겠네. 뜻하지 않게 손님이 하나 더 꼈지만 같이 식사하지 않겠어?"

"괜찮겠습니까, 왕녀 전하?"

"그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더 걱정일세. 생전 안 저러던 세실이 왜 저러는지, 쯧."

가볍게 혀를 찬 아그네스는 데이블린을 향해 재차 의사를 묻듯 고개를 기울였다. 데이블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걸쳐진 세실의 팔을 빼냈다.

"왕족 두 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니 되레 제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난 왜 빼?"

"이해해주어 고맙네."

아그네스가 젊은 집사를 향해 가볍게 손짓 하며 야외 식당의 테이블에 착석했다. 데이블린을 위해 준비된 자리 이외에 디트리히를 위한 자리도 급히 만들어졌다.

데이블린이 얌전히 제 자리에 앉자 세실이 어깨를 으쓱 해보이며 능청스럽게 그녀의 옆에 앉는 것으로 신경전은 일단락 됐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동안 분위기를 띄우던 세실이 급히 확인하실 결재 건이 있다는 집사의 요청으로 사라지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서먹해졌다.

식사를 하는 내내 고기를 씹는건지 돌을 씹는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분위기를 참다 못한 아그네스는 디트리히를 향해 말을 걸었다.

"그래서. 나한테 할 이야기가 뭔지 말해 봐."

"흠..."

데이블린을 향해 살짝 눈길을 던진 그는 이내 할 말을 꺼냈다.

"그래. 자리를 피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사실, 난 오늘 너의 수도 귀환을 논하려고 온 거다."

"귀환?"

"그래. 조금 더 일찍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 생겨났어. 내가 널 두둔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반년은 더 일찍 시일을 앞당길 수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접시 위에서 매끄럽게 움직이던 데이블린의 나이프가 끼긱, 듣기 싫은 소음을 내며 멈췄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채 하던 말을 마저 이었다.

"네가 날 돕겠다? 렌스 백작의 아들 놈을 데리고 내게 수작질 했던 네놈이?"

"말이 거칠군. 일이 꼬이면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야."

"그러는 네놈은 말 한 번 잘하네."

어이없어하는 아그네스 왕녀는 그러나 디트리히의 제안이 나쁘지 않게 들렸는지 손톱 끝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다.

"조건은?"

"구미가 당긴다니 다행이야. 거창한 건 아니고 마린다에서 경매 중인 금광 사업권을 워커 자작에게 넘겨주면 된다."

"더럽게 거창한데."

"'고문관 아그네스 왕녀' 별칭을 떼는 값으로는 싼 대가지."

"글쎄..."

말은 그렇게 해도 아그네스의 마음은 이미 반쯤 넘어가 있는 게 보였다. 시간을 끄는 건 값을 깎아보려고 밑밥을 까는 거겠지. 아까부터 식사를 멈춘 채 가만히 있던 데이블린은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식기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탁.

가끔 새 지저귀는 소리나 들리는 조용한 야외 식당에서 식기 마찰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벌써 식사 끝났어? 아직 전채 요리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멋모르는 사람 속여 넘기는 꼴을 보니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네요."

"속인다고?"

속인다는 말에 아그네스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자 데이블린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네. 왕녀님이요. 지금 속고 계시잖아요."

"내가 속고 있다?"

"왕녀님은 곧 봉작을 받으실 거잖아요."

"...내가?"

왕족이라면 부모에게서,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작위 여러개쯤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 왕위 계승 후보자인 아그네스와 디트리히의 사정은 조금 달랐다.

국왕이 자신의 아들인 디트리히를 견제하고, 선왕의 딸인 아그네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왕이 급사하면서 자잘한 작위를 미처 이어받지 못한 아그네스와 아버지의 견제로 작위 하나 없는 왕세자로 살아온 디트리히 모두 서로를 앞서기 위해 한 시라도 더 빨리 좋은 작위를 받길 원했다.

그런데 왕녀 자신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봉작 소식을 데이블린이 입에 올리니 아그네스는 의아할 따름이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원작에서 마넷의 뒷배가 된 아그네스가 라이렌 백작위를 받으면서 더 부강해진 힘으로 '데이'를 압박했기 때문이었지만 사실대로 말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래지스티나 후작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행장 딸 핑계를 댔다.

"저희 언니를 통해 알게 된 은행장 딸이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만지다 보니 정보가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도로 올라갔다간 봉작이 취소될거라는 말이야?"

"왕세자 전하께선 그걸 염두에 두고 제안하신 게 아닐까요? 왕녀님의 죄목이 누명인지 뭔지 저는 사정을 잘 모르지만..."

데이블린은 말을 멈추고 디트리히를 노려보며 웃었다.

"왕세자 전하께서 두둔한다 한들 어쨌든 국왕 폐하께서 권고한 자숙 기간을 어기고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봉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디트리히가 황당하다는 듯 아그네스를 향해 말했다.

"아그네스. 저런 말을 믿는 건가?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못 믿으시겠다면 왕성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데이블린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걸 보고 디트리히가 식탁을 쾅 내리쳤다.

"웃기지 마라. 그런 기밀을 함부로 누설할 것 같아?"

"기밀이라니. 수도에 이미 파다한데 왕세자 전하만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은행장이 산다는 곳이 어디지?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보겠다."

"네?"

집요하게 캐묻는 디트리히에게 데이블린은 인상을 찌푸려보였다.

"네 말대로 수도에 파다한데 나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네가 망상을 꾸민 것인지 혹은 건방지게 왕성에 사람을 심어둔 것인지 알아보겠단 말이다."

"하, 가시는 길을 제가 어떻게 막나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태연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은 떨리고 있었다.

'제길. 역시 후작이랑 달라서 그리 멍청히 넘어가진 않네.'

데이블린의 여유로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건지 디트리히는 드물게 씨익 웃으며 그녀를 추궁했다.

"그래서. 은행장의 이름이 뭐지?"

"그건..."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데이블린이 식사를 마쳤다고 말하자 식후 차를 따라주러 온 하녀가 티포트를 들고 차를 따르다 팔꿈치로 데이블린의 어깨를 살짝 쳤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그녀는 바닥에 닿아있던 구둣발을 박차고 뒤로 넘어지게 유도했다. 어깨를 부딪친 데이블린이 뒤로 넘어지려하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연히 커졌다.

"어...!"

놀란 하녀의 비명 소리와 아그네스의 커진 눈, 이제 막 업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 있던 세실의 놀란 표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세상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찰나의 순간. 데이블린은 뒤쪽에 달리 뭐가 있는지 힐끔 눈길을 돌렸다가 튀어나오려는 욕을 가까스로 삼켜야 했다.

'젠장. 물은 딱 질색이야.'

상황을 면피하려 어쩔 수 없이 물 속에 뛰어들게 되었지만, 데이블린은 전부터 물과 상성이 좋지 않았다. 물만 근처에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났다.

신예지와 살았을 때도 그랬다. 바다속에 머리 끝까지 잠기던 그때. 진심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었다. 그때 이후로 수영장 같은 곳은 최대한 기피해왔는데 제 발로 물 속에 뛰어들게 될 줄은 몰랐다.

풍덩.

의자와 함께 못 속에 빠진 데이블린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못 안은 생각보다 흐렸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 깊은 못은 아니었지만 큰 물을 무서워하는 그녀로서는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때 허우적 거리던 팔을 누군가 꽉 움켜쥐고 강하게 끌어올렸다. 그 힘에 의지해 겨우 물 속에서 빠져나온 데이블린은 공기를 크게 들이마쉬고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콜록거려야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세실은 자리에 남아있었던 아그네스와 디트리히를 향해 분노에 차 노성을 질렀다. 동시에 쨍그랑 하고 쇠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은 하녀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죄,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는 하녀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외투를 벗어서 데이블린의 어깨에 감싸준 뒤 그녀를 안아올려 저택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갔다.

남겨진 아그네스와 디트리히는 서로 무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디트리히가 먼저 세실을 향해 말을 걸려고 입을 열었지만 세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택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뒤 하인들에게 버럭 소리 질렀다.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부터 가져 와!"

"무슨 일 있으십니까?"

황급히 뛰어온 하인이 세실의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채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주의하면서 물었다.

"사람 흠뻑 젖은 거 안 보여?"

"잠깐만, 세실..."

어느정도 진정이 된 데이블린이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세실은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덮어준 외투를 뒤로 던진 뒤 하녀들이 준비해 온 커다란 바스타올로 데이블린을 둘둘 감쌌다.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난로 가져오라고 할게. 따뜻한 차는 곧 올거야."

"한여름에 난로는 무슨 난로야? 됐으니까 이제 갈아입을 옷만 있으면 돼."

"잔말 말고 몸이나 말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못 봐주겠으니까."

지난 몇 번의 만남 동안 보였던 장난기 어린 말투는 모두 사라진 세실이 마치 다른 사람인 같았다. 조금은 딱딱한 말투로 말한 그는 뒤이어 들어온 하인이 밀어온 트레이에서 차를 한 잔 따르더니 데이블린에게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스타올에 감싸져 차를 받은 데이블린은 갑자기 일어나는 그를 의아하게 올려다봤다.

"어디 가는 거야?"

그는 대꾸없이 열린 문간을 향해 턱짓했다. 하녀들이 드레스 여러벌이 걸린 이동식 옷장을 밀고와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다 입으면 말해. 감기 걸리니까 나오진 말고."

"감기 걸릴 날씨가 아니라니까."

투덜거린 데이블린은 세실이 나가자 흠뻑 젖은 옷을 벗고 하녀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말렸다. 그리고 그녀들이 골라주는 드레스로 갈아입었다. 레이스와 트리핑, 진주가 아낌없이 사용된 화려한 분홍색 드레스였다.

'아그네스의 드레스겠지?'

왕녀의 드레스라서 그런지, 혹은 로나드 왕국 최고의 거부인 키시어드 대공의 저택 물건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화려한 게 아니었다.

하녀들이 도와주는 대로 머리를 새로 한 뒤 옷을 갈아입었다. 그들은 이것저것 치장을 하더니 바퀴 달린 전신거울을 끌고와 데이블린에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핑크빛 드레스는 처음 봤을때부터 자신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입고나니 나쁘지 않아 보였다.

이전까진 풀고 있던 은색 머리카락을 하녀가 높이 올려 묶어주니 가느다란 목선이 돋보여 마냥 어려보이는 인상도 아니었다.

"색깔이 따뜻해서 조금 부해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워낙 마르셔서 그런지 옷이 잘 받으시네요."

"피부도 좋으셔서 저희가 손 댈 것이 없어요."

치장을 마친 하녀들이 사라지자마자 곧장 문에서 똑똑 노크소리가 들렸다. 상대는 말 한 마디 하지 않았지만 여태동안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사람이 누군지 잘 알 것 같았던 데이블린은 이 저택의 주인을 향해 말했다.

"들어와도 돼."

남의 집에서 노크 받는 기분이 이상해 금방 대답했더니 세실이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들어왔다.

"좀 괜찮아?"

아까보단 진정된 듯 차분한 톤으로 물으며 들어오던 세실은 데이블린을 발견하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순간 걸음을 멈췄다.

"잘 어울리네."

데이블린은 생각지도 못한 칭찬에 허를 찔린 사람 처럼 어색한 얼굴로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다른 말로 돌렸다.

"하녀가 실수한 거니 두 분께는 큰 일 아니라고 전해주면 좋겠어."

"그딴 건 신경쓰지 말고, 아까 안색이 파리하던데 물을 무서워하나?"

그녀의 상태를 날카롭게 짚어낸 세실은 이번만큼은 말을 돌려도 넘어가 주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물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라도 있는거야?"

"..."

데이블린은 말 없이 고개만 저었다.

[네가 신씨 성을 가졌다고 진짜 내 동생이라도 된 것 같아?]

내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동안 신예지는 위에서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고 있는 얼굴이 눈앞을 덮치는 바닷물에 가렸다, 말았다를 반복하며 점점 머릿속이 까맣게 잠겨갔다.

[거기서 죽어. 그게 네 운명이니까.]

"데이블린."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목을 감싸쥐자 세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봤다.

"왜 그래? 아직도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래, 여긴 깊고 어두운 바다 속도 아니고 이전 생과 같은 불리한 사생아의 위치로 살 필요도 없었다.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전보다는 훨씬 나은 인생이었다.

"아무 것도 아니야. 난 괜찮아."

마치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듯 중얼거리는 그녀의 상태를 혼란스럽게 보던 세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데이블린을 품 안에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맞아..."

"네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세실은 품 안에 잠긴 데이블린의 작은 어깨가 미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를 악물었다. 무슨 일인지 말 하기 어렵다면 듣지 않아도 좋다. 그저 그녀가 아까처럼 자신만만한 얼굴로 돌아오기를, 세실이 바라는 건 그것 뿐이었다.

세실이 데이블린을 안고 사라진 뒤, 휑뎅그렁하게 남은 두 사람 중 먼저 입을 연 건 아그네스였다.

"식사는 이대로 끝이겠군."

"그래서, 대답은?"

"글쎄..."

아그네스는 말끝을 흐리며 잠시 시간을 끌다가 피식 웃었다.

"몇 개월 이 시골에 더 처박혀 있는 걸로 봉작 받을 기회라도 얻는다면 밑질 것 없긴 해."

"지금 저 여자의 말을 믿는다는 소리냐?"

"아니, 네놈의 부하에게 넘겨줄 금광이 아까워서."

아그네스의 농담에 디트리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데이블린의 말에 이미 넘어가버린 것이다.

"왜 그래? 내가 공기 좋은 곳에서 정양하겠다는데."

"반년은 생각처럼 짧은 시간이 아니야, 아그네스. 얼마든지 네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기간이다."

"라이벌께서 내 걱정을 다 해주고 별일이로군."

"..."

겁을 줘도 마음을 굳힌 듯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속 편한 한량 행세까지 하려 들었다.

"육 개월 일찍 수도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 난 여기 생활이 꽤 마음에 들어."

자리에서 일어난 아그네스가 적갈색 눈동자 속에 희미한 비웃음을 담아 눈꼬리를 휘었다.

"그럼 아쉽게 협상이 결렬되었으니 이만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네, 디트리히 왕세자 전하."

"후회할 거야."

"내 걱정을 다 해주다니 황송하네."

그녀는 디트리히를 남겨두고 먼저 저택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디트리히는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지 식탁을 쾅 내리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든 말든 저택 안에 들어간 아그네스는 하인 하나를 붙잡고 세실의 상태를 물었다.

"아직도 대공의 화가 가라앉지 않았느냐?"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방 안에 계셔서요."

"누구랑? 숙녀 분이랑?"

"네. 2층 복도 제일 끝에 있는 손님방으로 모셨습니다. 왕녀 전하께서 찾는다고 두 분께 말씀을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가마."

아그네스는 하인이 말한 방 앞에 도착해서 가볍게 노크했다.

"래지스티나 양. 괜찮소? 들어가도 되겠나?"

"..."

내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기다리니 안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세실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드물게 당황스러운 얼굴이었다.

"뭐야."

"말투가 사납군. 손님은 괜찮으신가?"

"멀쩡해. 신경 끄고 할 일 해."

"누가 보면 내가 하녀인 줄 알겠어."

그러자 세실도 더 버티고 있긴 힘들었는지 짧은 한숨과 함께 문을 가리고 있던 몸을 비켜주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데이블린은 왕녀와 눈이 마주치고 황급히 일어났다.

"왕녀 전하."

"래지스티나 양. 아까 보다 혈색이 좋군."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 때문에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었네요."

"별 걸 다 걱정하는군. 세실이 자네 때문에 많이 놀란 것 같던데 저 이나 잘 다독여 주지 그래."

"쓸 데 없는 얘기 하지마, 아그네스."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과민 반응하는 세실에게 웃어보인 아그네스는 문간을 향해 훠이훠이 손짓했다. 그녀는 발끈하는 세실을 동생 보듯 장난기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으니 그만 나가줘."

"나가라고? 나 말이야?"

"그래. 래지스티나 양은 오늘 내가 초대한 손님이잖아. 우리끼리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란 뜻이야."

데이블린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을 알고 아그네스가 하는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당신 그만 나가줘."

"뭐야? 아깐 실컷 이용해먹더니 이젠 나가라고?"

"내가? 날 이용한 건 세실, 너지. 나 핑계 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화내고 다녔잖아."

"그건...!"

억울한 듯 무언가 항변하려던 세실은 이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뭐?"

"...아니야."

마치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듯이 아그네스를 향해 눈빛을 보낸 세실은 이내 방 밖으로 나갔다. 아그네스는 조금 긴장한 듯한 데이블린의 옆에 앉아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긴장하지 마시게. 난 그저, 최근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해서 그대를 불렀어."

"네? 무슨..."

"그대와 세실의 사이에서 염문설이 퍼져있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앉아있던 데이블린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염문설이요?"

"반응 한 번 격렬하군."

"갑자기 그런 소문이 왜 퍼진거죠?"

"난 모르지. 본인이 더 잘 알 것 아닌가?"

"아니요. 전 전혀..."

데이블린은 손사래를 치다가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때문에 인상을 썼다.

'그러고 보니 슈나우저인가 하는 돼지 새끼와 만났을 때 세실이 끼어들었었지.'

이졸데에겐 열 받으라고 곡해해서 전달했지만 지금 상대는 아그네스였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후원인인 세실을 빼앗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 함부로 관계를 과시해서도 안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데이블린은 아그네스에 대해 잘 몰랐다.

아니, 잘 알았지만 그건 원작 속의 악당. 마넷의 편이 된 아그네스 왕녀였지 자신에게 호의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이런 눈빛을 보내는 아그네스가 아니었다.

"짐작가는 게 있나 보군."

"그런 게 아니라..."

"세실이 장난기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사생활 적인 면에선 철두철미한지라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 원체 여자에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고? 첫 만남부터 귀찮게 굴던 그를 생각해보면 의아한 이야기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지?'

'데이'에게 있어선 다시 없을 악당 아그네스의 후원인이자 원작의 최종 흑막, 사람들에겐 자기 관리에 철저해서 이상한 소문 한 번 나 본 적 없는 남자, 하지만 데이블린에겐 그저 능글맞게 자주 말 걸고 장난치는 실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아, 소문이 정말이라면 내 물음을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말게. 우린 몇 없는 친척 중에서 그나마 교류하고 지내는 친구니까."

"불쾌하지 않습니다, 왕녀님."

"그렇다면 다행이네."

안심한 듯 미소짓는 아그네스를 보고 있는 데이블린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그네스, 설마 세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건가?'

데이블린이 세실을 처음부터 경계하고 피했던 이유는 '데이'가 겪은 원작에서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자였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정으로 표현되는 말이 아닌, 그는 자신의 친척이자 오래 교류한 정치적 파트너였던 아그네스를 작품 말미에 비정하게 버린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디트리히가 아그네스를 필두로 세실마저 없애버리려 하자 아그네스를 버린 것이다.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만든 선왕의 딸인 아그네스와 손을 잡은 세실과, 그런 원한을 알면서도 세실과손을 잡은 아그네스. 두 사람이 처음 무슨 생각으로 협력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끝에 아그네스는 세실을 어느정도 믿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야비한 아그네스 왕녀가 막판에 얌전히 뒤통수를 맞았을 리 없으니까.

그녀에게 따로 조언을 해주는 이가 있지 않는 한, 아마 지금의 아그네스 또한 원작과 같은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데이블린은 구태여 그녀를 구해줘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에겐 그리도 매정했고 마넷마저 이용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던 아그네스 왕녀가 세실 만큼은 친족이라고 귀애했다니 참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럼 그대의 언니 마넷 래지스티나가 나를 바람맞힌 날 이야기나 해주겠어? 기껏 찾아갔더니 주인공이 사라졌다니, 나 원."

"아..."

세실을 거쳐서 자신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그날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아그네스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다.

'이상해.'

이러면 안된다. 아그네스는 적이고, 언젠가 자신을 '데이'와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부술 것이 틀림 없었다. 디트리히와 사랑하게 될 결말도 망쳤는데 이제 와 아그네스에게 마음이 약해질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

아그네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쪽 입가를 올렸다. 정말 그날 일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기 보다는 데이블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말을 거는 눈치였다.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패를 보이게 될까 봐 두려웠다. 데이블린은 적당히 말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는, 내가 한 게 있어야 말이지."

"이 옷을 빌려주셨잖아요."

"옷?"

아그네스는 데이블린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드레스가 아니네."

"네?"

"놈에게 여장 취미가 있을 리는 만무하고, 얼마 전에 의상실을 들락거리더니 그때 산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아그네스는 뒤늦게 아차했다.

"내가 이 이야기 했다는 말은 세실에게 비밀일세."

"..."

그러고 보니 아그네스의 파티날 세실이 마넷과 자신에게 드레스를 보낸 적 있었다.

'그때 산 건가?'

그럼 아그네스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넷이나 자신의 것이 될 옷이었다는 뜻이다. 데이블린은 괜히 기분이 이상해져 핑크빛 드레스 옷감을 만지작거렸다.

"점심은 이렇게 망쳐 버렸지만 저녁은 꼭 근사하게 대접하겠어."

"네? 아닙니다. 이렇게 폐를 끼쳤는데... 그만 돌아가 볼게요."

"역시 마음이 상한건가?"

"그게 아니라 옷도 빌렸고 식사 자리도 망쳤는데 계속 있기는 죄송스러워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 아쉽군..."

"대신 오늘 무산된 식사는 제가 다음에 대접하는 걸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제야 아그네스의 표정이 펴졌다. 그녀가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안심한 데이블린은 배웅해준다는 말도 사양한 뒤 공손히 인사를 건네고 방을 나왔다.

"휴."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다. 데이블린은 복도를 걷다가 멈춰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비록 물에 빠지고 점심도 굶다시피 했지만 아그네스가 생각 외로 세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니 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1층으로 내려가 곧장 현관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가려던 데이블린은 세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물 속에서 구해줬고 대공인데 인사 한 마디 없이 돌아가긴 힘들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어.'

그녀는 현관 앞에서 배웅하려던 하녀를 하나 붙잡고 세실의 행방을 물었다.

"대공 각하께 작별 인사를 건네고 싶은데 어디 계시지?"

"돌아가신다고요? 각하께선 지금 응접실에 계신데요. 래지스티나 양이 내려오면 응접실로 안내하라 하셨습니다."

"날?"

그럼 그렇지. 순순히 보내줄 생각은 없다는 네 마음은 잘 알겠다. 어차피 인사도 해야했으니 얌전히 하녀를 따라간 데이블린은 응접실에 도착했다가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카우치에 앉아있는 세실을 발견했다.

"내가 왜 이러지?"

뜬금없는 말이었다. 그는 곤란한지, 초조한지 알 수 없는 기색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뭐라는 거야?'

데이블린은 하녀에게 가보라고 손짓한 뒤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세실은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치겠네."

'넌 원래 미친놈이잖아.'

"그나저나 아그네스는 애를 왜 이렇게 오래 붙들어 놓는거야."

한쪽 발을 초조하게 구르던 그가 안되겠는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자 데이블린이 기척을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 그만 갈게."

깔끔하게 한 마디 내뱉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세실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벌써 간다고?"

"그럼? 식사 때문에 온건데 나 때문에 식사가 엉망이 됐잖아."

"점심 제대로 못 먹었을테니 저녁 식사하고 가."

"왕녀님도 권하셨는데 됐다고 했어. 다음에 내가 따로 초대할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면 적당히 떨어져 나갈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데이블린에게 허락을 맡겨 놓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물었다.

"나는?"

"뭐?"

"나도 초대할 거야?"

"당신을 왜 초대해 내가."

"왜 아그네스만 초대하는데? 오늘 너 건져주고, 말리고, 예쁘게 꾸민 건 난데."

"막말로 말리고 도와준 건 하녀들이지. 그래도, 뭐. 이 옷은 고마워. 내 거라면서?"

그러자 세실이 혼잣말 하며 이를 갈았다.

"아그네스... 입이 많이 가벼워졌군, 그래."

"어쨌든 갈 거니까, 안녕히 계세요 대공 각하."

"누구 마음대로 혼자 가?"

"왜 이러세요 각하?"

데이블린이 황당하게 되묻자 세실이 가까이 다가와 씨익 웃으며 팔을 내밀었다.

"혼자 가는 건 막겠지. 하지만 둘이 가는 건 괜찮아. 바래다 줄게."

"볼 일 보세요 각하. 당신을 달고 집에 갔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런 소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부모님들을 보니 바깥에서 악세사리라도 달고 들어가지 않으면 매정할 사람들 같던데."

"그래서. 당신이 그 악세사리가 되어 주겠다는 거야?"

그 말에 세실은 기분 나쁘다는 기색도 없이 눈가를 접어 미소지었다.

"날 걸어주신다면 영광이지."

데이블린은 한동안 대꾸없이 세실을 노려보듯 올려다봤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며 완전히 페이스를 회복해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어차피 옷이 바뀌었다고 마넷이 무슨 지랄이든 할테니 차라리 세실을 달고가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 생각이 들자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좋아. 에스코트 해줘."

"물론이죠.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데이블린은 자신이 타고 온 마차를 먼저 돌려보내고 세실이 준비해 준 키시어드 대공가의 문장이 찍힌 마차에 올라탔다. 래지스티나 후작 저택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도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벌써 도착이네. 아쉽게 말이야."

"그래? 난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내 집에 오니까 편한데."

마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태워준 값으로 다음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도 고려해볼게요, 각하."

"그거 듣던 중 기쁜 소식이네. 끝까지 아무 말 없으면 질척거리려고 했거든."

"어이없어."

짧은 웃음을 지은 데이블린이 몸을 돌려 래지스티나 후작저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다. 커튼 친 2층 창문이 하나 눈에 띄었다. 다른 건 아니고 그 창문만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된 마넷이 시뻘게진 눈으로 데이블린을 쏘아보고 있었다.

데이블린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환하게, 아주 환하게 웃었다. 손까지 흔들어 줬더니 마넷은 더 참지 못하고 살짝 걷혀 있던 커튼을 완전히 쳐 버렸다.

"별 것도 아닌 게."

만면에 짓고 있던 미소를 순식간에 구겨 버린 데이블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등진 마넷은 어두운 방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절대 용서 못해 데이블린 래지스티나!"